

2025년 경제·산업 전망

2025년 경제·산업 전망

요약	7
제1장 거시경제 전망	21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21
2. 대내외 여건 전망	24
3. 2025년 국내 경제 전망	33
<참고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경제적 영향	49
<참고 2> 금리 인하와 민간소비	52
<참고 3> 금리 인하와 설비투자	54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59
1. 2025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59
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71
3. 종합 및 시사점	88
<참고>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	99

표 차례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25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26
〈표 1-3〉 국제유가 전제	30
〈표 1-4〉 원/달러 환율 전제	32
〈표 1-5〉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33
〈표 1-6〉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34
〈표 1-7〉 민간소비 전망	36
〈표 1-8〉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37
〈표 1-9〉 부문별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37
〈표 1-10〉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39
〈표 1-11〉 설비투자 전망	40
〈표 1-12〉 건설투자 추이	41
〈표 1-13〉 건설투자 전망	43
〈표 1-14〉 산업별 수출 증가율	46
〈표 1-15〉 가공 단계별 수입	47
〈표 1-16〉 2025년 수출입 전망	48
〈표 2-1〉 2025년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	60
〈표 2-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제품 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62
〈표 2-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64
〈표 2-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66
〈표 2-5〉 2025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영향	68
〈표 2-6〉 2025년 산업별 기타 주요 이슈 및 영향	70
〈표 2-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74
〈표 2-8〉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78
〈표 2-9〉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83
〈표 2-10〉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86
〈표 2-1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88

〈표 2-12〉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	91
〈표 2-1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93
〈표 2-1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94
〈표 2-15〉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95
〈표 2-16〉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96
〈표 2-1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97
〈표 2-18〉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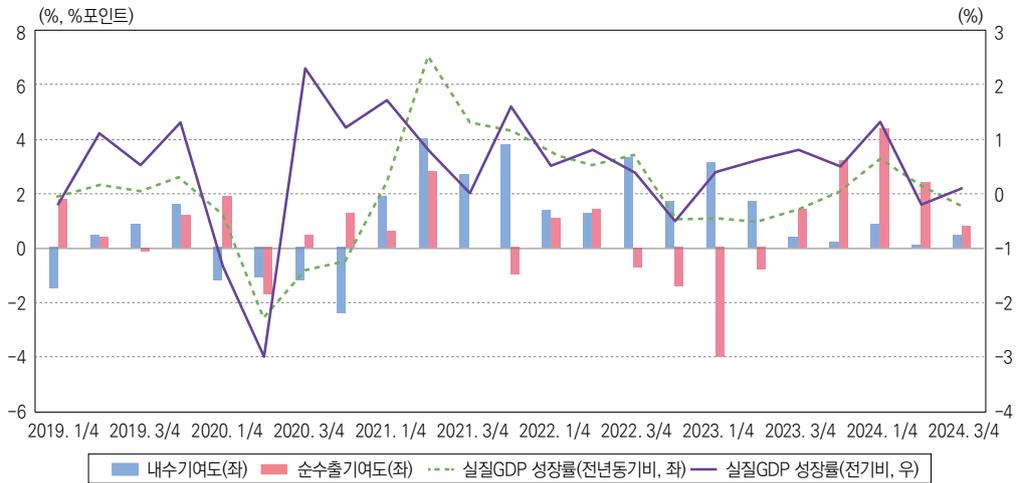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22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23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23
〈그림 1-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24
〈그림 1-5〉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26
〈그림 1-6〉 세계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월별)	27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율 추이(분기별)	28
〈그림 1-8〉 세계 주요국의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추이(월별)	29
〈그림 1-9〉 국제유가 추이	30
〈그림 1-10〉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31
〈그림 1-11〉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및 물가 상승률 추이	32
〈그림 1-12〉 민간소비 추이	35
〈그림 1-13〉 고용지표 추이	35
〈그림 1-14〉 소비자 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36
〈그림 1-15〉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38
〈그림 1-16〉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38
〈그림 1-17〉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40
〈그림 1-18〉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42
〈그림 1-19〉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42
〈그림 1-2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43
〈그림 1-21〉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44
〈그림 1-22〉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45
〈그림 1-23〉 지역별 수출 증가율	46
〈그림 2-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72
〈그림 2-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76
〈그림 2-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82
〈그림 2-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86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약화
- 국내 실물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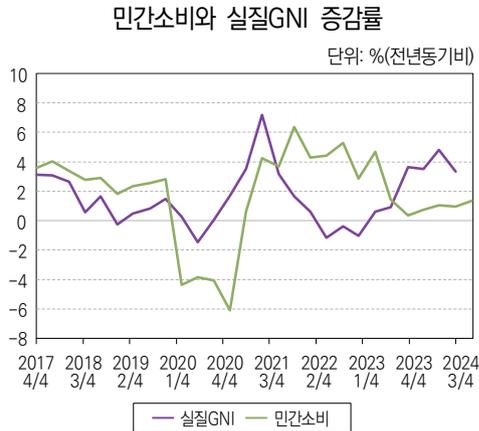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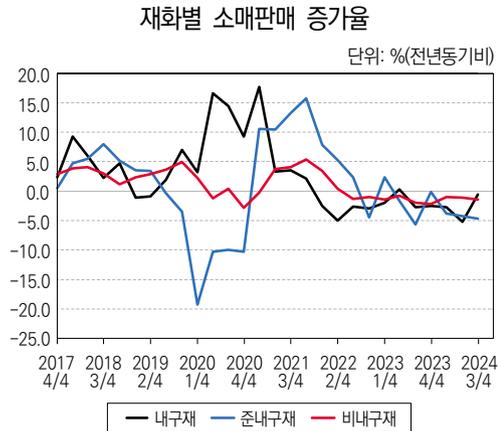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에도 오랜 기간 누적된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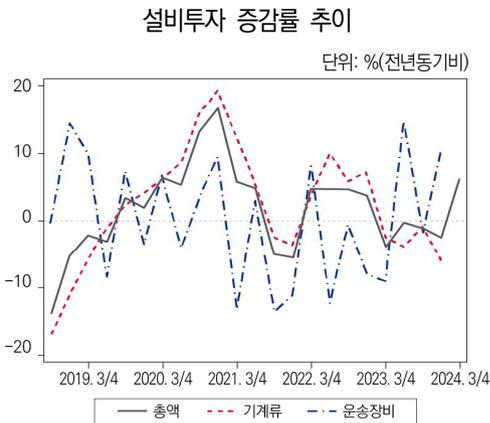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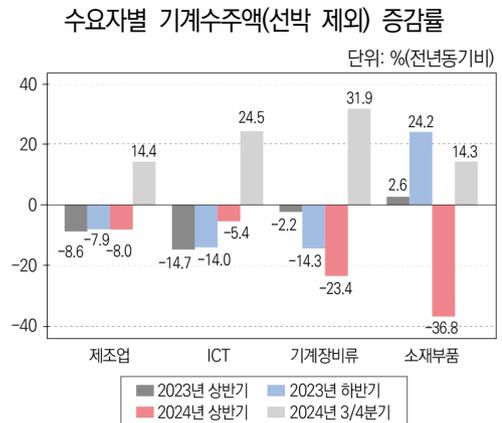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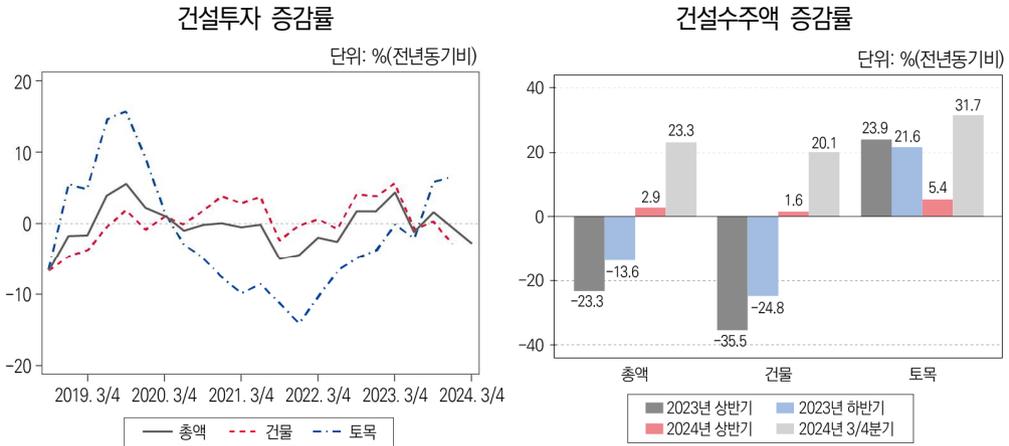
○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상승세 유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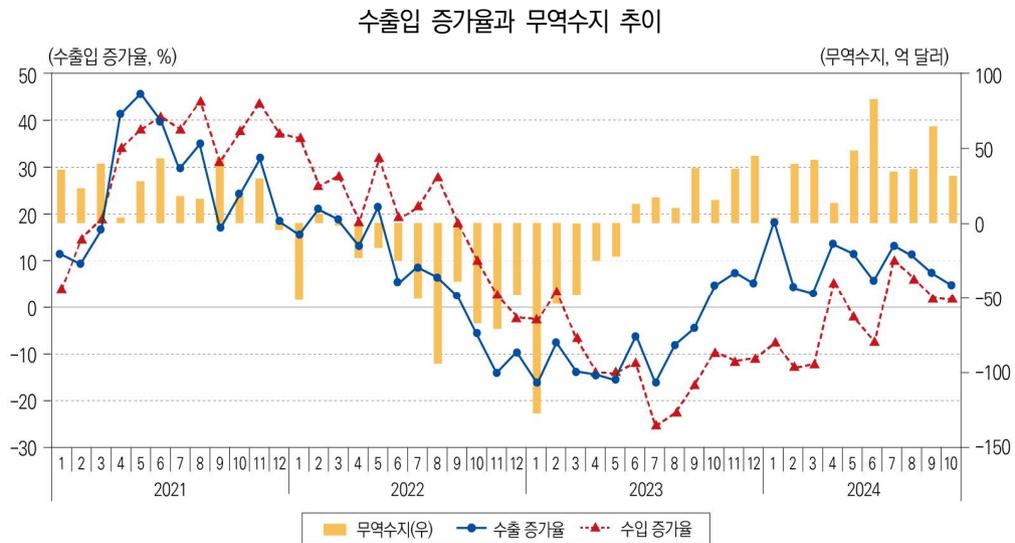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제) 2025년 세계 경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 전망

○ 2025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3			2024			IMF		OECD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24	2025	2024	2025
전 세계			3.3				3.2	3.2	3.2	3.2
선진권	1.8	1.6	1.7	1.4	1.5	-	1.8	1.8	-	-
미국	2.6	3.2	2.9	2.9 (1.6)	3.0 (3.0)	2.8 (2.7)	2.8	2.2	2.6	1.6
유로존	0.9	0.1	0.5	0.5	0.6	0.9	0.8	1.2	0.7	1.3
일본	2.3	1.1	1.7	-0.8	-1.1	-0.3	0.3	1.1	-0.1	1.4
신흥권	4.1	4.2	4.2	4.2	3.9	-	4.2	4.2	-	-
중국	5.3	5.1	5.2	5.3	4.7	4.6	4.8	4.5	4.9	4.5
세계 교역(재화)			-0.8				2.6	3.3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년 10월);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4년 9월); World Bank GEM Database.

주: 1) 전 세계는 PPP 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과 신흥권의 반기별 및 분기별 수치는 세계은행 추산 기준.

3) () 안의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

□ (전제) 2025년 유가 및 환율: 유가 배럴당 74달러, 환율 1,345원 내외

○ 2025년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OPEC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 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국제유가 전제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83.3 (5.3)	77.4 (-9.1)	80.3 (-2.1)	73.5 (-11.7)	76.0 (-1.8)	74.8 (-7.0)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4년 하반기는 11월 12일 현재 기준.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원/달러 환율 전제

단위: 원/달러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350.2 (4.2)	1,361.6 (3.4)	1,355.9 (3.8)	1,363.3 (1.0)	1,328.3 (-2.4)	1,345.8 (-0.7)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4년 하반기는 11월 12일 현재 기준.

□ 2024년 및 2025년 국내 경제: 2024년 2.2%, 2025년 2.1%로 성장세 소폭 둔화

- 2025년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수출이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하면서 2.1% 성장할 전망
 -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IT 경기 회복 속도 등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5년 소비: 1.9%의 완만한 회복세

-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으로 2024년(1.3%) 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25년 설비투자: 2.9%로 전년 대비 증가세 확대

-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4년(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할 전망

□ 2025년 건설투자: -0.9%로 전년에 이어 부진 지속

○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의 영향으로 2024년(-1.6%)에 이어 0.9%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2025년 수출입: 수출 2.2% 성장, 무역흑자 규모 소폭 확대

○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IT 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할 전망이며,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확대된 48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3	2024			2025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1.4	2.8	1.6	2.2	1.9	2.2	2.1
민간소비	1.8	1.0	1.6	1.3	1.9	2.0	1.9
설비투자	1.1	-1.8	4.1	1.2	3.9	2.0	2.9
건설투자	1.5	0.4	-3.5	-1.6	-3.3	1.3	-0.9
통관 수출	6,322 (-7.5)	3,354 (9.3)	3,500 (7.6)	6,855 (8.4)	3,396 (1.2)	3,606 (3.0)	7,002 (2.2)
통관 수입	6,426 (-12.1)	3,119 (-6.4)	3,262 (5.5)	6,381 (-0.7)	3,147 (0.9)	3,369 (3.3)	6,516 (2.1)
무역수지	-104	236	238	474	228	259	48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5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세계 수요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종재 소비 및 중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정체되고 전 세계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우 사태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은 2025년에도 세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수요는 내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기계, 철강, 가전), AI 서버 교체 수요 발생(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처방 확대(바이오헬스) 등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

· 다만, 대기 수요 해소(자동차), 전기차 판매 둔화(이차전지) 등의 부정적 요인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유럽 시장에서는 구매 수요 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 가능성, 노후설비 구조조정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이차전지 수요에 대한 긍정적 여건 발생이 예상

- 중국 시장에서는 2025년에도 성장 정체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등의 수요가 부진할 전망이나, ICT 수요가 호조세로 전환되고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로 국산 중간재(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요 개선 기대

· 단,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한 중국 전반의 추가적인 시장 위축 가능성은 상존

○ (제품 단가 변화) 2025년 국내 주요 수출제품의 단가는 기존 제품의 고급화 경향 등에 의

한 상승 요인이 존재, 단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IT 부문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는 판매 단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해외 생산 전망) 2025년에도 주요 산업의 해외 생산은 국내 생산비용 증가, 무역장벽 및 물류비용 증가와 인도 등 현지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편 중국 현지 생산 규모는 지속 감소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진행은 계속될 전망

□ 국내 공급능력은 첨단·유망 분야 중심으로 소폭 확대 예상, 중국의 추격과 과잉 생산은 2025년에도 주력산업의 수출과 내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전망, 미 대선 결과도 우리 수출과 생산에 긍정과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이슈

○ (공급능력 여건) 전기차, 첨단섬유 및 바이오 등 신성장 유망 분야 관련 공급능력의 확대가 예상되며 AI·DX 전환과 그린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조선, 철강, 정유, 반도체 분야 관련 투자는 지속될 전망

○ (주요 이슈: 미 대선 결과) 미 대선 결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전망, 다만 정책의 시행 시기 및 효과의 발생 시차 등을 고려 시 주요 산업의 2025년도 수급 실적에의 반영 여부는 불확실

- 자동차 및 이차전지산업은 보편관세 부과와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 후퇴 시 수출과 생산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전망

- 반면, 대중국 견제의 반사이익으로 조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긍정적인 영향 발생을 기대할 수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의 수출 증가도 예상

○ (주요 이슈: 산업별) 미 대선 결과의 영향 이외에도 중국의 과잉공급 및 경쟁력 상승 등 주로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2025년 국내 13대 주력산업이 직면하게 될 업종별 주요 이슈일 것으로 예상

2. 2025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전년에 이어 IT산업이 13대 산업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예상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IT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이어지며 전년 대비 2.2% 증가 예상, 단 해외 생산의 확대, 중국의 회복 지연 및 경쟁력 신장은 우리 수출 확대를 제약할 전망

- 2024년 13대 산업의 수출은 철강 등 소재산업, 일반기계 및 이차전지에서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및 바이오헬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2023년 대비 10.3%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기계산업군) 조선산업(4.1%)의 수출 성장은 지속되나 부진한 중국 수요와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자동차(-2.7%) 및 일반기계(0.2%) 수출이 정체되며 기계산업군 전체 수출은 2024년 대비 0.8% 감소 예상

- (소재산업군) 철강(5.0%), 석유화학(0.1%)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유(-7.5%) 수출의 큰 폭 감소 영향으로 소재산업군 전체의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며 지난해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

- (IT 신산업군) 2024년 28%의 큰 폭으로 증가한 IT 신산업군의 수출은 AI 수요 증가,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IT 기기 수요 확대에 반도체(8.5%), 정보통신기기(8.4%), 바이오헬스(4.9%) 등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2025년에도 6.9%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단 전기차 수요 정체, 중국의 경쟁력 제고는 수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내수: 소비심리 개선 및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국내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기계산업군) 제조업 전반의 투자 확대와 내수 시장 위주의 판매전략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1.1%), 자동차(3.6%) 등 주요 산업의 2025년 내수는 증가세로 전환 예상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석유화학(4.2%)의 내수 반등 및 정유(+0.1%) 내수 규모

유지가 예상되나 철강(-2.1%)은 건설 수요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할 전망

- (IT 신산업군) IT 수출 호조 및 국내 교체 수요 발생으로 정보통신기기(4.3%), 반도체(17.3%) 등 주요 IT산업의 내수는 증가 전환 예상, 신약 효과로 인한 바이오헬스(13.3%)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전지(-21.8%)는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위축세로 내수 감소가 지속될 전망

□ 생산: 수출의존도 높은 IT 신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 지속 예상, 자동차 등 여타 산업에서는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전년의 위축 추세가 이어질 전망

- (기계산업군) 해외 생산 확대로 자동차(-1.5%)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하고 기저효과 영향으로 조선(-1.5%)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내수 개선으로 기계(0.2%)는 증가로 전환 예상
- (소재산업군)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철강(-0.6%), 섬유(-1.0%)의 부진세 지속 전망, 석유화학(0.8%)은 판매 단가 개선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 전환 예상
- (IT 신산업군) 수출 호조세 지속 및 내수 개선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5.6%), 반도체(11.1%), 바이오헬스(12.7%) 생산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차전지는(-4.4%) 수출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예상

□ 수입: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IT 신산업군의 수입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및 범용소재 부문 수입의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3.6%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전기차 관련 수입 확대로 자동차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반기계는 제조업 경기 회복 흐름 영향, 조선은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수입과 LNG운반선 건조 확대 영향으로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소재산업군) 중국산 범용제품의 국내 유입 지속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수입의 증가 요인이나 내수 성장 정체가 수입 증가를 제약할 전망, 정유는 단가 하락으로 감소 전환 예상
- (IT 신산업군) 내수 회복, 신제품 출시 및 역수입 확산에 따라 주요 IT산업의 수입 증가 추세 지속과 바이오헬스산업 수입의 증가 전환 예상, 이차전지는 부진한 내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3. 종합 및 시사점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5년에도 정보통신기기·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은 수출, 내수, 생산 지표에서의 견고한 성장 예상, 조선·가전·디스플레이산업은 성장세 정체 내지 둔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기계·석유화학·정유는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되나 자동차, 철강, 섬유, 이차전지는 침체 국면이 다소 이어질 전망
- 2025년에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교역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대응, 선도 부문에서의 초격차 확보, 전통 부문에서의 수요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응,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제1장

거시경제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약화

○ 국내 실물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에도, 오랜 기간 누적된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상승세 유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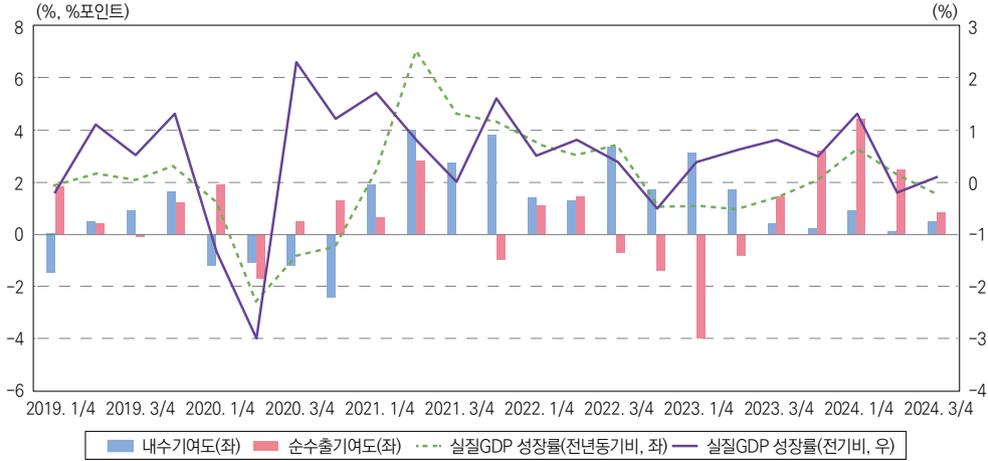
-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 GDP(전기비, %): (2023. 3/4) 0.8 → (4/4) 0.5 → (2024. 1/4) 1.3 → (2/4) -0.2 → (3/4) 0.1

· GDP(전년동기비, 이하 동일, %): (2023. 4/4) 2.1 → (2024. 1/4) 3.3 → (2/4) 2.3 → (3/4) 1.5

· 민간소비(%): (2023. 3/4) 0.3 → (4/4) 0.7 → (2024. 1/4) 1.0 → (2/4) 0.9 → (3/4) 1.3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설비투자(%): (2023. 3/4) -3.9 → (4/4) -0.2 → (2024. 1/4) -1.0 → (2/4) -2.5 → (3/4) 6.3
- 건설투자(%): (2023. 3/4) 4.3 → (4/4) -1.2 → (2024. 1/4) 1.6 → (2/4) -0.5 → (3/4) -4.9
- 통관수출(%): (2023. 3/4) -9.7 → (4/4) 5.7 → (2024. 1/4) 8.1 → (2/4) 10.1 → (3/4) 10.6 → (10월)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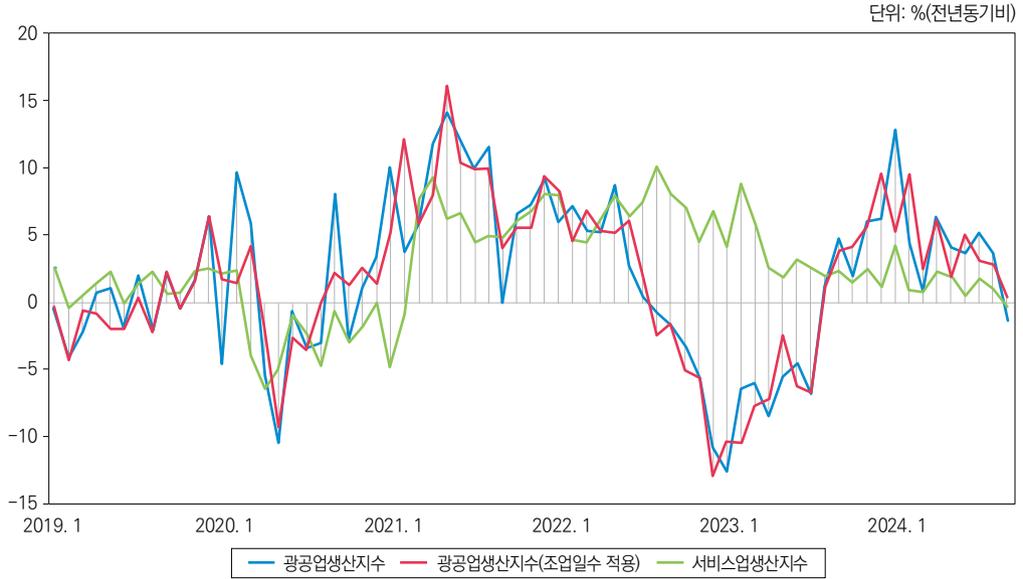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견조한 증가세가 올해 들어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9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이며, 서비스업 생산 역시 미약한 증가세가 이어지다 9월에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 광공업(전년동기비, %): (2024년 4월) 6.4 → (5월) 4.2 → (6월) 3.8 → (7월) 5.2 → (8월) 3.8 → (9월) -1.3
- 서비스(전년동기비, %): (2024년 4월) 2.4 → (5월) 2.0 → (6월) 0.6 → (7월) 1.7 → (8월) 0.9 → (9월) -0.2

○ 경기지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최근 들어 횡보하는 모습이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3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하락세가 유지되며 실물경기 약세를 반영

- 선행순환변동치 전월차: (2024년 4월) 0.3 → (5월) 0.0 → (6월) 0.2 → (7월) 0.0 → (8월) -0.1 → (9월) 0.0
- 동행순환변동치 전월차: (2024년 4월) -0.1 → (5월) -0.6 → (6월) -0.1 → (7월) -0.7 → (8월) 0.0 → (9월) -0.1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2. 대내외 여건 전망

(1) 세계 경제

□ 2024년 동향: 선진권 · 신흥권 경기의 비교적 완만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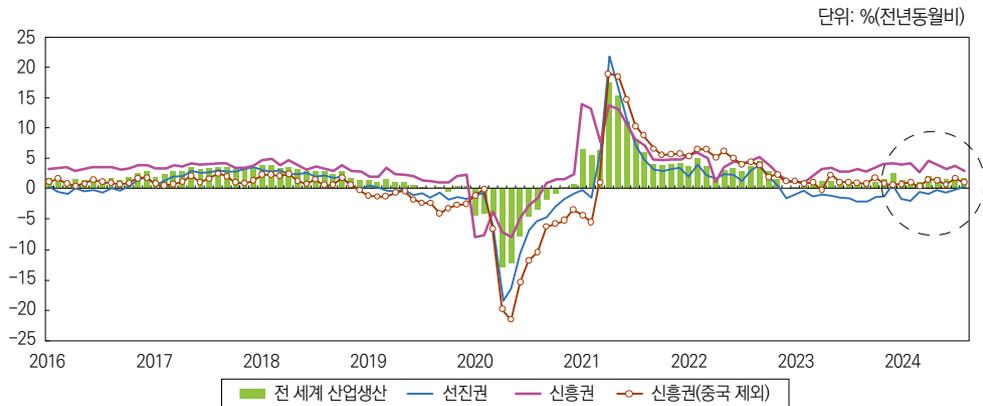
○ 세계 실물경기는 2024년 들어 인플레이 둔화세 속에서 주요국들의 금리 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권과 개도권에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 들어서도 완만한 흐름이 지속

- 선진권에서는 미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도 고용 호조세와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연 3%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에, 일본과 유로존은 고인플레이 지속 등에 따른 수요 둔화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시현

- 신흥권에서는 중국 경제가 2024년 1분기에 연 5%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대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도와 브라질도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 수준에 그치면서 성장 추동력이 약화

- 전 세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023년) 1.0 (2024년 상반기) 1.5 (2024년 7~8월) 1.9
-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023년) -1.1 (2024년 상반기) -0.9 (2024년 7~8월) 0.1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023년) 3.0 (2024년 상반기) 3.8 (2024년 7~8월) 3.4

〈그림 1-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5년 전망: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 전망

○ 2025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미국 경제는 그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뒷받침해 온 소비와 고용이 약세 국면에 들어서는데 성장 모멘텀이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연준(Fed)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내수 둔화를 제한하면서 2024년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이 예상
- 일본 경제는 고물가에 대응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으로 내수 약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엔저(低)에 따른 수출 효과 등으로 1%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유로존은 역내 인플레이 둔화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가 내수 여건에 긍정적 요인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와 제조업 침체 등으로 2024년 대비 성장률이 소폭 상승
-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내·외수 동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급속한 경기 하강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이 예상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3			2024			IMF		OECD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24	2025	2024	2025
전 세계			3.3				3.2	3.2	3.2	3.2
선진권	1.8	1.6	1.7	1.4	1.5	-	1.8	1.8	-	-
미국	2.6	3.2	2.9	2.9 (1.6)	3.0 (3.0)	2.8 (2.7)	2.8	2.2	2.6	1.6
유로존	0.9	0.1	0.5	0.5	0.6	0.9	0.8	1.2	0.7	1.3
일본	2.3	1.1	1.7	-0.8	-1.1	0.3	0.3	1.1	-0.1	1.4
신흥권	4.1	4.2	4.2	4.2	3.9	-	4.2	4.2	-	-
중국	5.3	5.1	5.2	5.3	4.7	4.6	4.8	4.5	4.9	4.5
세계 교역(재화)			-0.8				2.6	3.3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 10);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4. 9); World Bank GEM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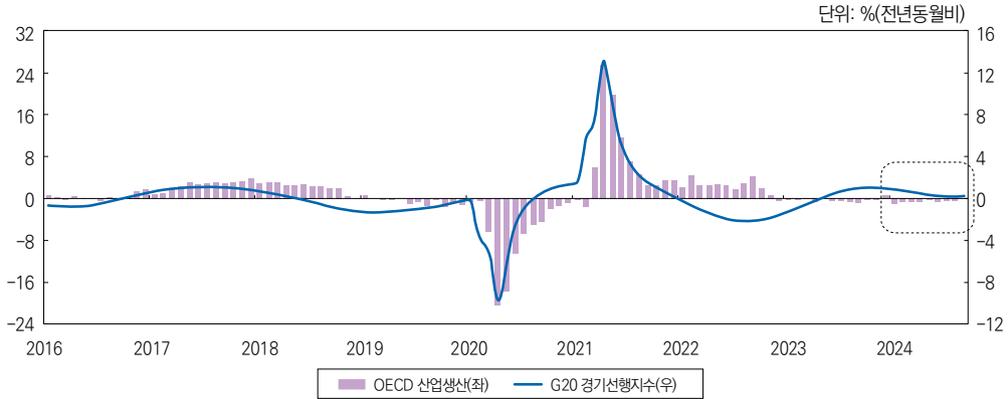
주: 1) 전 세계는 PPP 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과 신흥권의 반기별 및 분기별 수치는 세계은행 추산 기준.

3) ()안의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

- 세계 경기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지역 분쟁 심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시차 효과와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관세 인상) 강화에 따른 교역 위축 및 인플레이 재심화 가능성 등이 관심사

〈그림 1-5〉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자료: OECD.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¹⁾ (장기 추세=100)						전월비 변화율(%)						전년 동월비
	2023			2024			2023			2024			2024 9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G20개국	99.81	99.95	99.96	100.04	100.06	100.14	0.37	0.14	0.01	0.08	0.02	0.08	0.19
G7(선진권)	99.11	99.27	99.48	99.83	100.01	100.19	0.16	0.16	0.21	0.35	0.18	0.17	0.92
유럽 4개국 ²⁾	99.13	99.30	99.62	99.92	100.20	100.36	0.19	0.17	0.31	0.31	0.28	0.16	1.06
아시아 5개국 ²⁾	99.64	100.21	101.10	101.71	102.00	102.27	0.50	0.57	0.89	0.61	0.30	0.27	2.06
미국	98.96	99.18	99.42	99.85	99.95	100.13	0.20	0.23	0.23	0.43	0.09	0.18	0.94
독일	99.26	99.00	99.24	99.74	100.17	100.24	▲0.40	▲0.26	0.24	0.49	0.43	0.08	1.24
프랑스	99.06	99.28	99.52	99.53	99.28	99.22	0.01	0.22	0.24	0.01	▲0.26	▲0.05	▲0.06
영국	98.91	99.82	100.44	100.93	101.58	101.82	1.28	0.91	0.62	0.50	0.65	0.24	2.01
일본	100.02	100.02	99.88	99.94	100.07	100.08	0.04	0.00	▲0.15	0.06	0.13	0.01	0.06
브라질	100.95	101.19	100.75	100.19	99.76	99.53	0.94	0.24	▲0.44	▲0.55	▲0.43	▲0.23	▲1.66
중국	99.51	99.56	99.71	99.96	100.22	100.46	▲0.05	0.05	0.16	0.24	0.27	0.24	0.91
인도	99.55	99.65	99.57	99.56	99.86	100.52	0.53	0.10	▲0.09	▲0.00	0.29	0.67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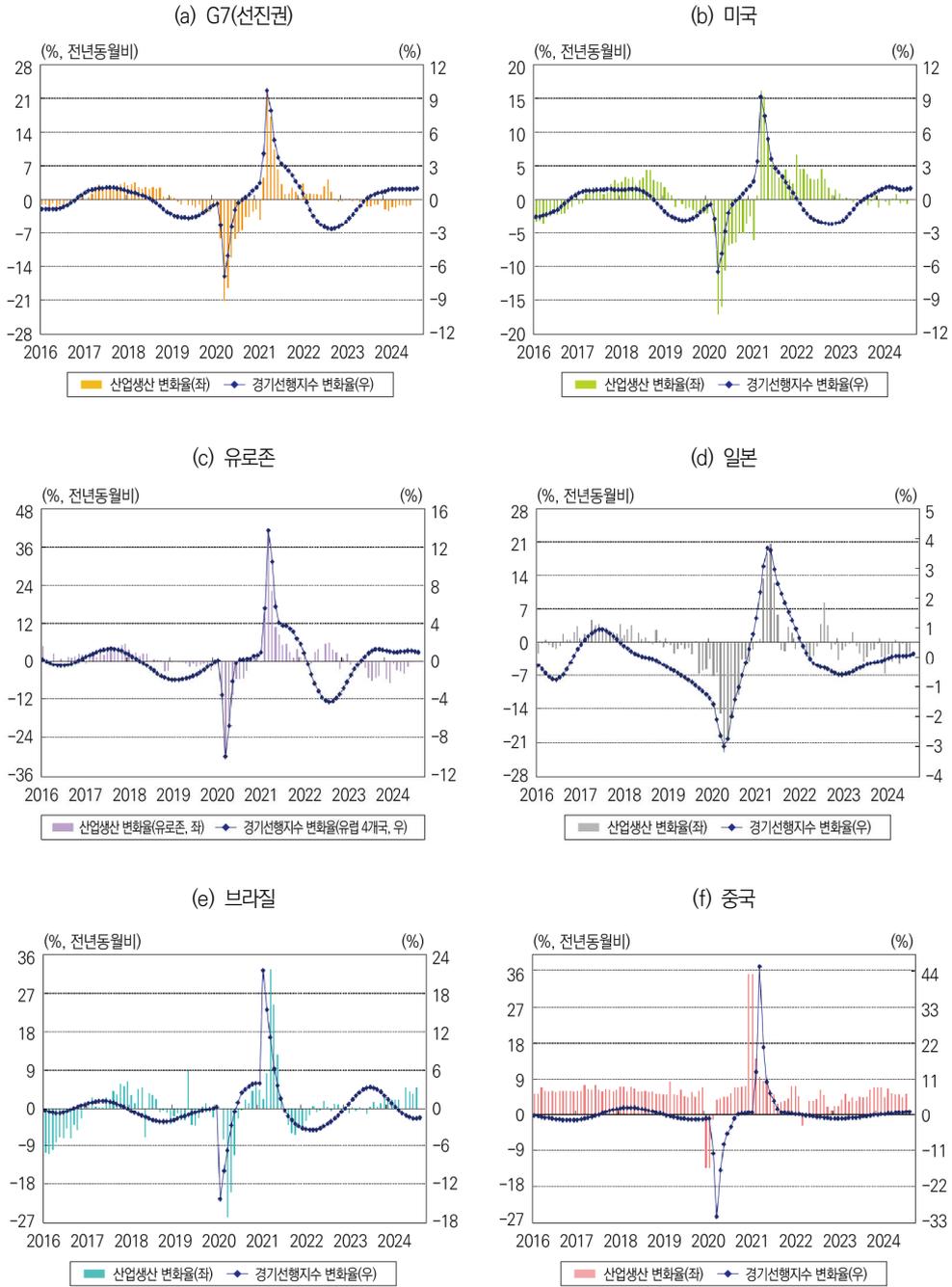
자료: OECD.

주: 1)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확장(또는 수축),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회복(또는 하강)을 의미.

2) 유럽 4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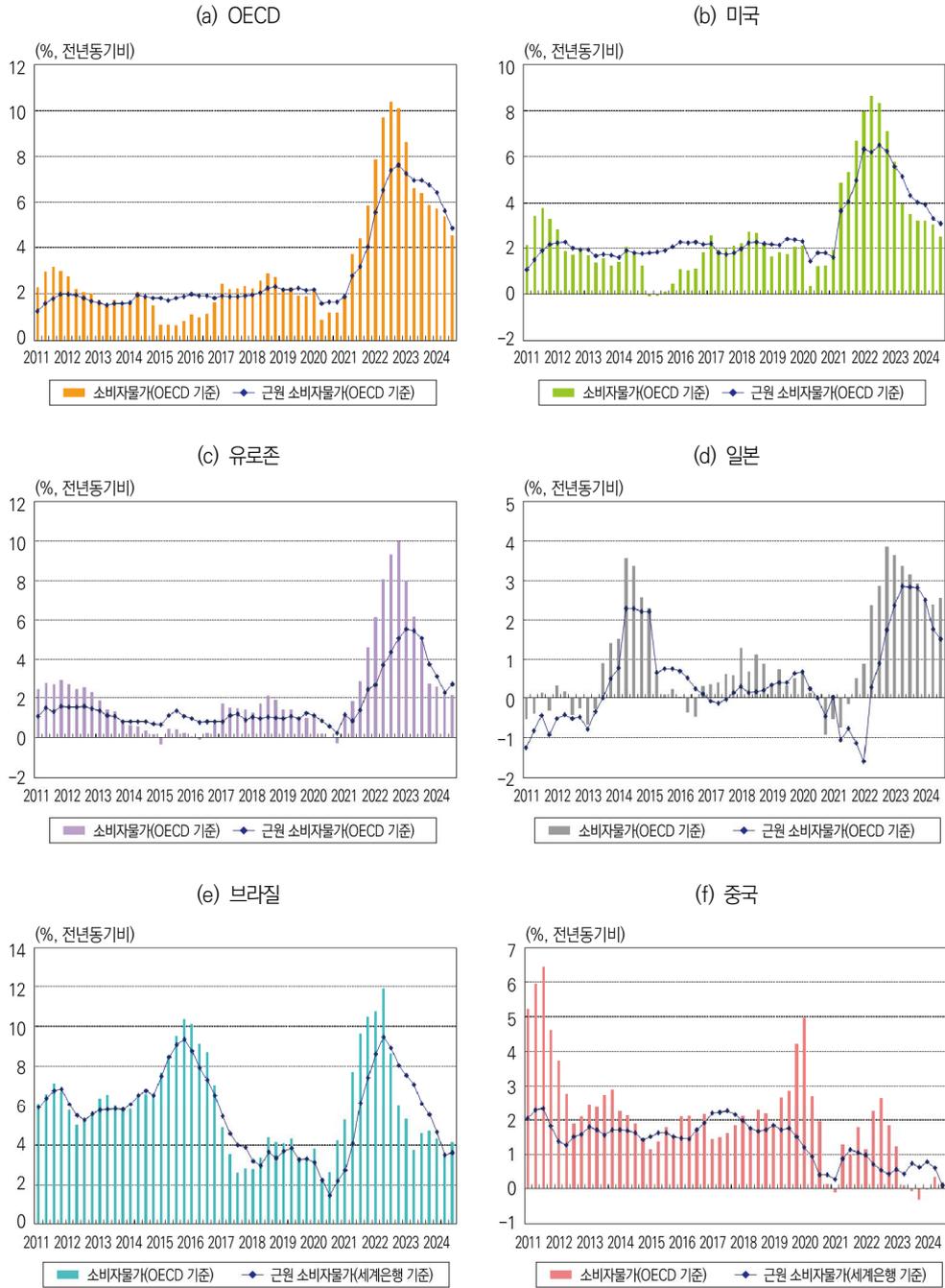
3) ▲는 마이너스를 의미.

〈그림 1-6〉 세계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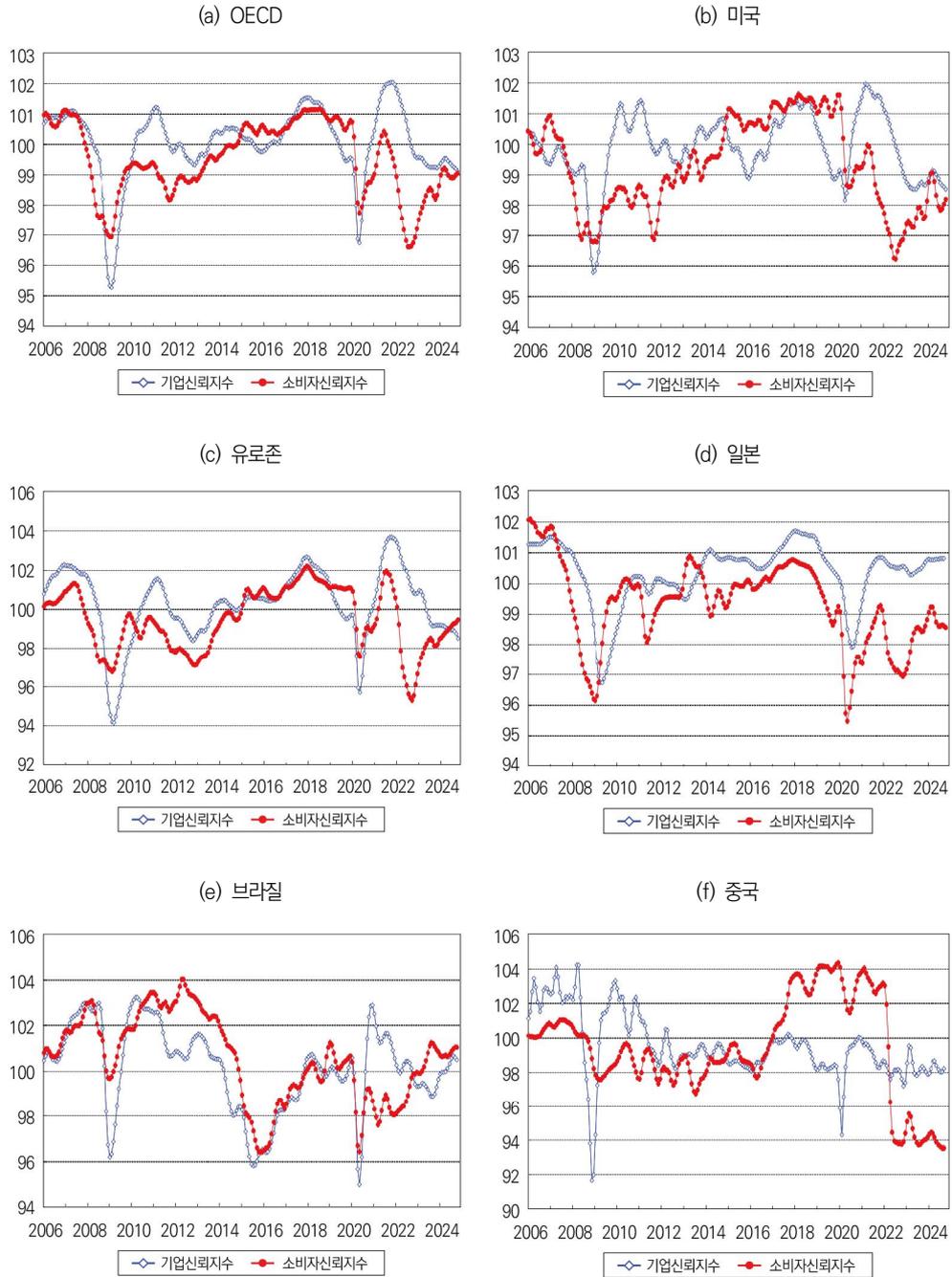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를 추이(분기별)



자료: OECD, World Bank.

〈그림 1-8〉 세계 주요국의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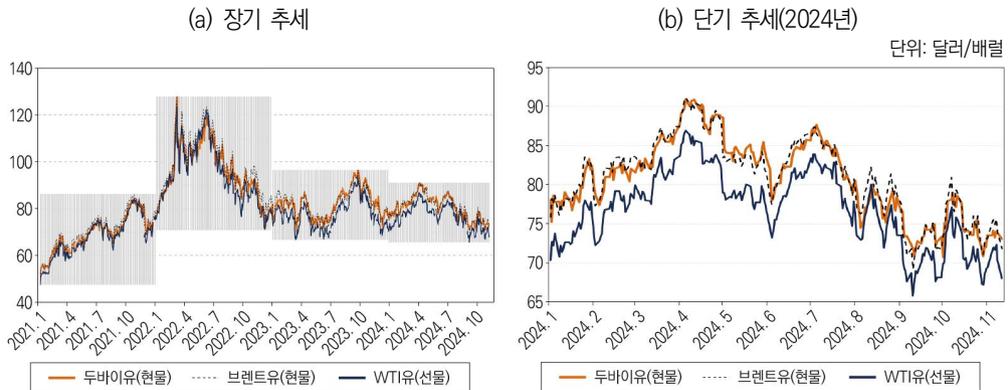


자료: OECD.

(2) 유가: 올해 대비 하락한 74달러 내외 예상

○ 2024년 국제유가는 상반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OPEC+의 감산 발표로 4월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에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

〈그림 1-9〉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솟값~최댓값)임.

○ 2025년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 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원유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정세와 미국의 원유 생산 변화 등 공급 측면 요인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표 1-3〉 국제유가 전제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83.3 (5.3)	77.4 (-9.1)	80.3 (-2.1)	73.5 (-11.7)	76.0 (-1.8)	74.8 (-7.0)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4년 하반기는 11월 12일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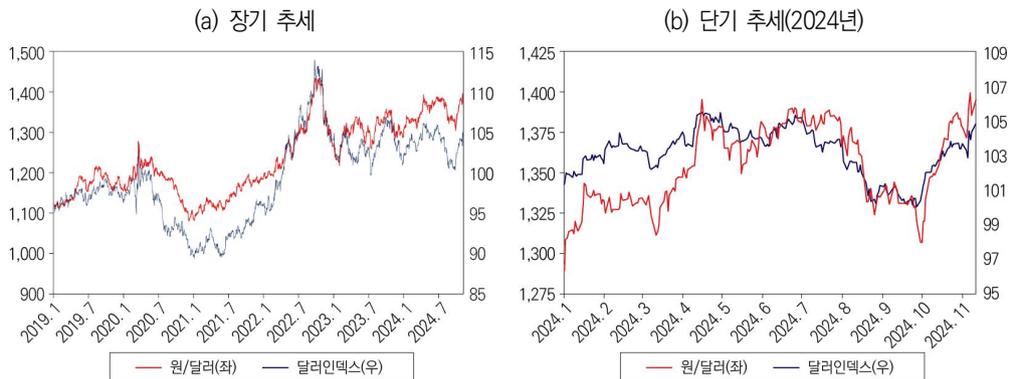
- 2025년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상반기 평균 73.5달러(전년동기비 11.7% 하락), 하반기에는 76.0달러(전년동기비 1.8% 하락), 연평균 74.8달러(전년 대비 7.0% 하락)로 전망

(3) 환율: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약세로 전환되며 1,345원 내외 예상

○ 2024년 원/달러 환율은 연초 중동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로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때 1,300원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미국 대선 결과와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급등하며 연고점을 경신

· 2024년 원/달러 환율: 연고점(11월 14일) 1,407.3원, 연저점(9월 30일) 1,306.9원

〈그림 1-10〉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Data Stream.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 2025년 원/달러 변동의 주요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향방, 중동지역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요소의 확대 여부, 중국 경기의 부진 정도 등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1,363.3원(전년동기비 1.0% 상승), 하반기 1,328.3원(전년 동기비 2.4% 하락), 연평균 1,345.8원(전년 대비 0.7% 하락) 내외로 예상

〈표 1-4〉 원/달러 환율 전제

단위: 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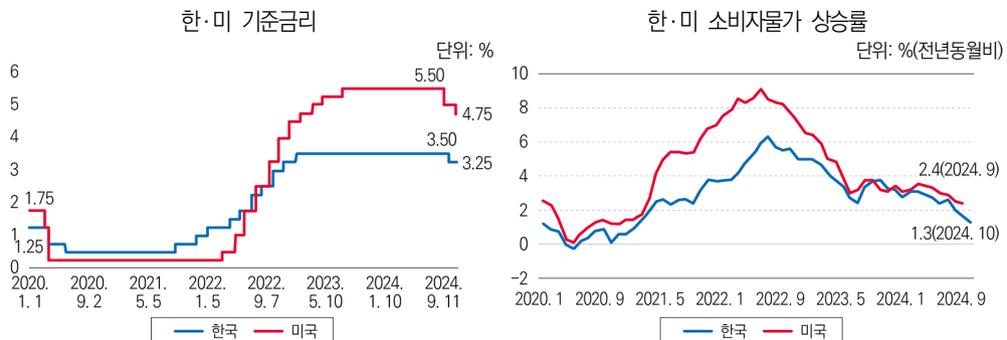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350.2 (4.2)	1,361.6 (3.4)	1355.9 (3.8)	1,363.3 (1.0)	1,328.3 (-2.4)	1,345.8 (-0.7)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4년 하반기는 11월 12일 현재 기준.

(4) 금리: 물가 기조적 둔화에 따른 점진적인 금리 인하

- (대외) 미 연준은 물가와 고용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며 기준금리를 조정해 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지는 불확실
 - 트럼프 당선인의 10% 보편적 관세 도입,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 인하 기조를 약화시킬 가능성
 -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 중간값을 2025년 말 3.4%로 전망하며, 3.25~3.50% 수준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
- (대내) 한국의 기준금리는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환율 등의 대외변수와 내수 등의 국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

〈그림 1-11〉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및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준금리는 한국 3.25%(10월 11일 0.25%p 인하), 미국 4.75%(11월 7일 0.25%p 인하), 미국은 상단 기준.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 1.3%(2024년 10월), 미국 2.4%(2024년 9월).

- 2025년 국내 기준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반기에 2%대에 진입한 후 하반기에는 2% 중반대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

3. 2025년 국내 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5년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이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하면서 2.1%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으로 2024년(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4년(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의 영향으로 2024년(-1.6%)에 이어 0.9%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

〈표 1-5〉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3	2024		2025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1.4	2.8	1.6	2.2	1.9	2.2	2.1
민간소비	1.8	1.0	1.6	1.3	1.9	2.0	1.9
설비투자	1.1	-1.8	4.1	1.2	3.9	2.0	2.9
건설투자	1.5	0.4	-3.5	-1.6	-3.3	1.3	-0.9
통관 수출	6,322 (-7.5)	3,354 (9.3)	3,500 (7.6)	6,855 (8.4)	3,396 (1.2)	3,606 (3.0)	7,002 (2.2)
통관 수입	6,426 (-12.1)	3,119 (-6.4)	3,262 (5.5)	6,381 (-0.7)	3,147 (0.9)	3,369 (3.3)	6,516 (2.1)
무역수지	-104	236	238	474	228	259	48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IT 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확대된 48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2024년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 민간소비는 2024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1.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3분기에는 전년동기비 1.3%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소폭 확대
 - 실질총소득(GNI)은 수입물가 하락과 교역조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4년 1, 2분기 각각 전년동기비 4.8%, 3.4% 증가
 - 소득교역조건은 수입물가의 낙폭 축소로 상승세는 점차 둔화
 - 수입물가 변화율(전년동기비, %, 달러 기준): (2024. 1/4) -4.1 → (2/4) 1.4 → (3/4) -0.9
 - 소득교역조건 변화율(전년동기비, %): (2024. 1/4) 11.1 → (2/4) 10.7 → (3/4) 7.4

〈표 1-6〉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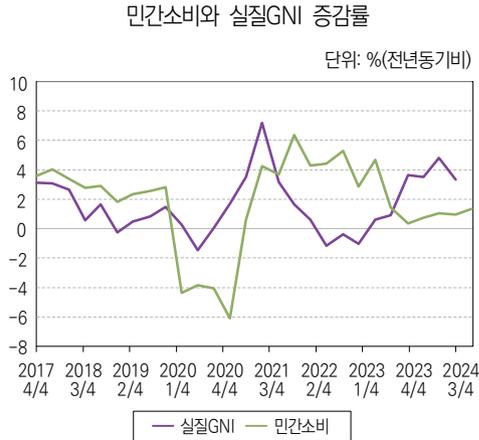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2022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민간소비	4.2	4.7 (0.5)	1.4 (-0.3)	0.3 (0.1)	0.7 (0.4)	1.8	1.0 (0.7)	0.9 (-0.2)	1.3 (0.5)
소매판매액지수	-0.3	-0.8 (0.6)	-0.7 (-0.5)	-2.7 (-1.9)	-1.9 (0.4)	-1.6	-2.1 (-0.5)	-2.9 (-0.8)	-1.9 (-0.5)
실질GNI	-0.5	0.6 (1.9)	0.9 (-0.9)	3.6 (2.1)	3.5 (0.6)	2.2	4.8 (2.4)	3.4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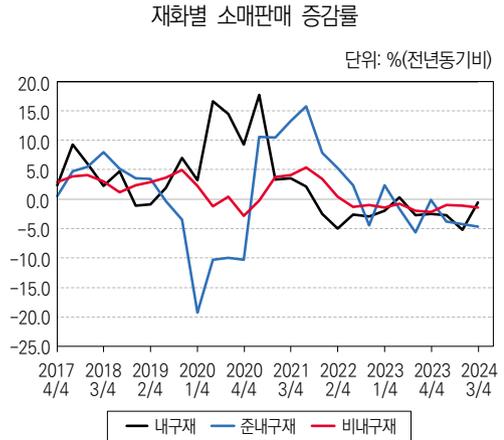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1-12〉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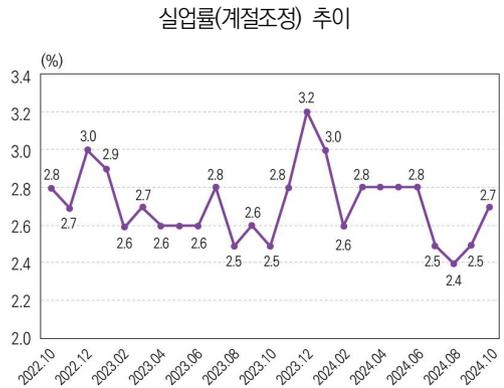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매판매는 2024년 들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고, 내구재 판매의 감소세가 5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 전 산업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고, 실업률도 최근 소폭 상승
- 취업자 수는 2024년 10월 기준 전년동월비 0.3% 증가한 2,884만 명 수준이고, 실업률은 2개월 연속 상승한 2.7%를 기록

〈그림 1-13〉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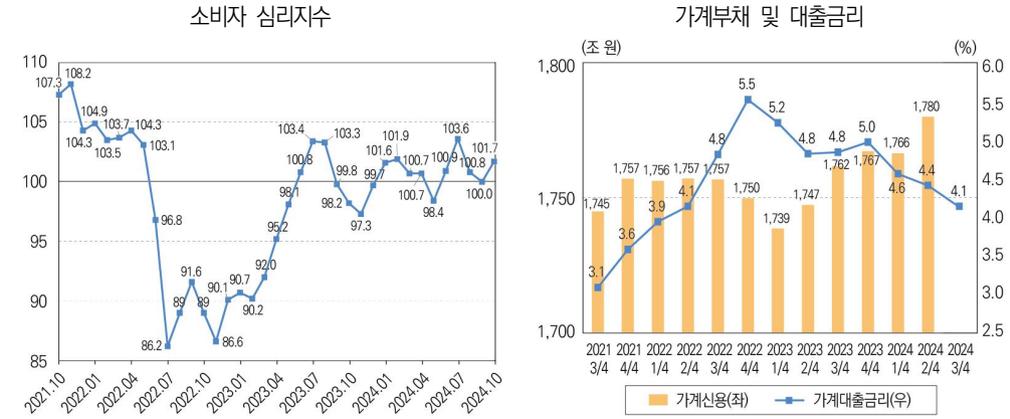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9월 100까지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하여 10월에는 101.7을 기록하고, 2024년 3분기 가계대출금리는 4.1%로 2023년 4분기 5.0% 이후 점차 하락
- 가계부채는 2024년 1분기 소폭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4〉 소비자 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자료: 한국은행.

- 2025년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히 회복될 전망
- 다만, 높은 가계부채 부담은 민간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은 시차로 인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

〈표 1-7〉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1.0	1.6	1.3	1.9	2.0	1.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2) 설비투자

○ 2024년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

- 최근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동반 증가함에 따라 2024년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3%로 증가 전환

○ 2024년 3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가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운송장비도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전년동기비 28.2%)함에 따라 빠른 회복세(10.5%)를 보임.

〈표 1-8〉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설비투자	1.1	4.7 (-1.4)	3.8 (0.4)	-3.9 (-2.0)	-0.2 (2.8)	-1.0 (-2.0)	-2.5 (-1.2)	6.3 (6.9)
기계류	1.6	5.9 (-2.9)	7.3 (1.6)	-2.4 (-3.8)	-3.9 (1.3)	-0.8 (0.4)	-5.9 (-3.6)	
운송장비	-1.0	-0.5 (-5.0)	-8.0 (-4.2)	-9.0 (5.6)	14.8 (8.9)	-1.9 (-10.7)	10.5 (8.1)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4년 3분기는 속보치.

2)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표 1-9〉 부문별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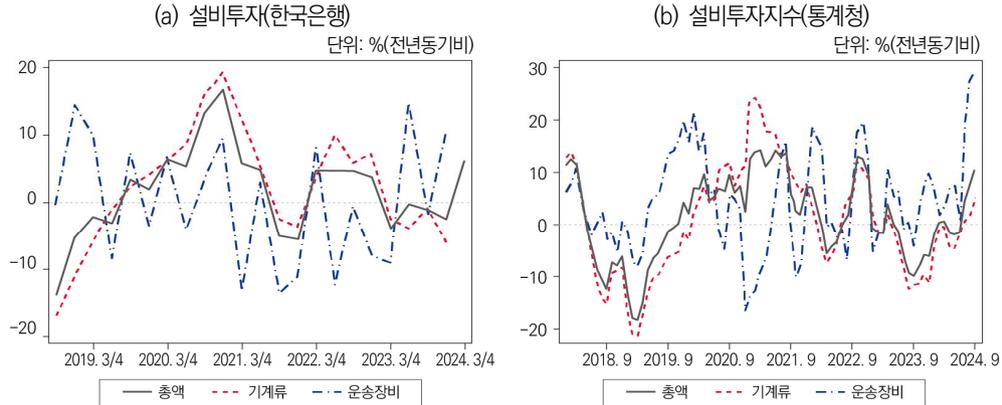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¹⁾	
부문 세부 부문	총지수	-4.8	-1.9	-1.3	-9.9	-6.0	0.3	-1.5	10.5
	기계류	-7.1	-1.7	-3.7	-11.8	-11.1	-0.9	-1.8	5.1
	일반기계류	-9.6	-3.0	-2.5	-17.9	-15.1	1.1	-3.7	12.0
	전기 및 전자기기	-4.7	-3.9	-8.1	-1.8	-5.1	-0.2	4.8	-9.4
	정밀기기	-1.2	10.5	-0.5	-5.7	-9.3	-8.5	-3.2	11.1
	기타기기	-2.4	-4.6	-5.1	-2.8	2.7	-5.5	-5.2	-6.9
	운송장비	2.3	-3.0	6.4	-4.2	9.9	3.9	-0.3	28.2
	자동차	2.5	12.8	13.9	-11.5	-5.0	-14.5	-14.0	7.9
	기타운송장비	4.1	-29.9	-8.7	11.7	43.2	56.1	34.8	64.2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1) 잠정치.

〈그림 1-15〉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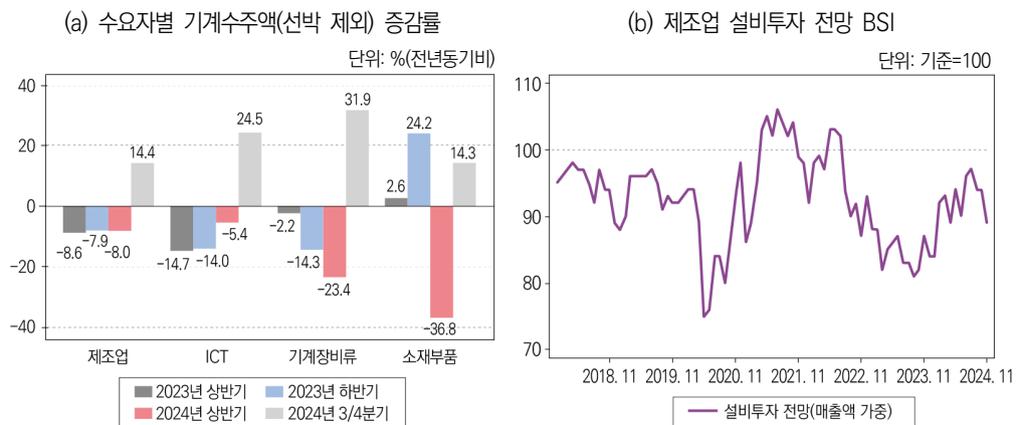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2024년 3분기 기계류 설비투자는 일반기계와 정밀기기 증가세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며, 운송장비도 자동차(7.9%)와 기타운송장비(64.2%)의 급증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기계수주액은 2024년 3분기 ICT(전년동기비 24.5%), 기계장비류(31.9%), 소재부품(14.3%) 등 주요 업종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3분기 14.4% 증가

〈그림 1-16〉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치.

- 설비투자 전망 BSI는 2024년 8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97)를 기록했으나, 이후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24년 3분기 자동차(전년동기비 -2.7%p), 1차 금속 제조업(-4.4%p), 섬유제품(-2.9%p) 등에서 감소했으나, ICT(4.7%p), 기타운송장비(5.9%p), 석유정제(7.1%p) 등이 확대되면서 2023년 4분기에 시작된 확대 기조가 유지

〈표 1-10〉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단위: %포인트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¹⁾
제조업		-7.8	-5.4	-0.2	3.0	4.6	4.0	2.1
ICT		-28.6	-15.4	4.8	15.0	23.9	12.5	4.7
기계장비류	자동차	17.6	11.7	2.8	-0.2	-1.7	1.1	-2.7
	기타운송장비	9.2	5.3	9.1	5.1	4.5	6.3	5.9
	일반기계	3.5	-6.8	-15.3	-14.6	-4.8	1.7	4.4
소재부품	석유정제	0.9	2.2	-8.2	5.5	3.4	0.6	7.1
	화학제품	-16.6	-12.6	-2.2	2.4	-3.1	2.5	3.2
	1차 금속	-7.0	-3.0	0.5	12.4	-0.3	-7.0	-4.4
	섬유제품	-5.0	-6.5	-6.7	-5.5	-7.2	-1.1	-2.9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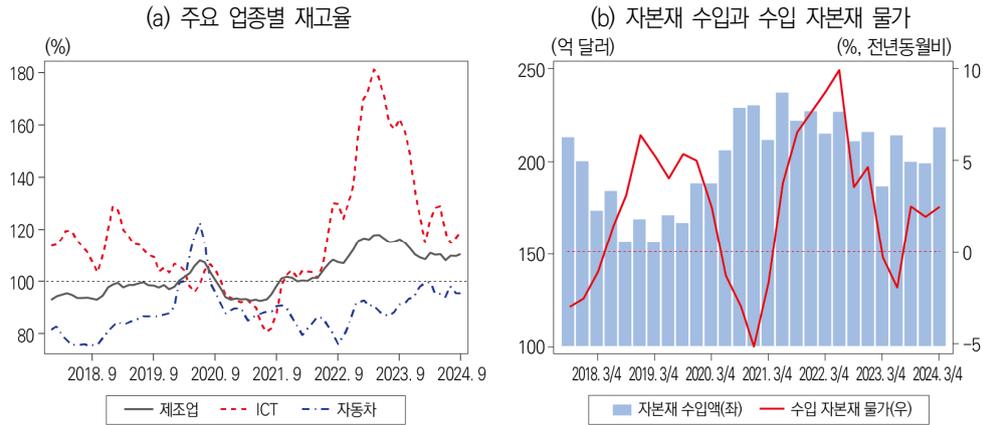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 제조업 재고율은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재고율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나, 9월 들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106.8%)을 기록

· 제조업 재고율 추이(%): (2023. 3/4) 116.6 → (4/4) 110.5 → (2024. 1/4) 111.1 → (2/4) 108.4 → (3/4) 110.7

-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수입 자본재 가격이 2024년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자본재 수입액은 2024년 3분기 전년동기비 17.2%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1-17〉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1) 재고율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자본재 수입액은 달러 기준, 수입 자본재 물가는 원화 기준.

○ 2025년 설비투자는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으로 2024년(1.2%)보다 높은 2.9% 증가할 전망

-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정책과 중동 전쟁 등의 불확실성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¹⁾

〈표 1-11〉 설비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1.8	4.1	1.2	3.9	2.0	2.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1) 주요 기업들의 2024년 3분기 콘퍼런스 콜에서의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

- SK하이닉스: "미래 성장을 위해 준비 중인 M15X와 용인 클러스터의 1기 팹 투자로 내년 인프라 투자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시황과 투자 효율을 고려해 기존 라인 전환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운영 중이고, 투자 규모는 축소할 것으로 전망".

3) 건설투자

○ 2024년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 건설투자는 2023년에 회복세를 보인 건물건설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3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

- 건설기성액은 토목건설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건물건설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기비, %): (2024. 1/4) 4.1 → (2/4) -2.9 → (3/4) -8.8

* 건물건설 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4. 1/4) 2.7 → (2/4) -5.8 → (3/4) -12.1

* 토목건설 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4. 1/4) 8.8 → (2/4) 6.4 → (3/4) 3.1

〈표 1-12〉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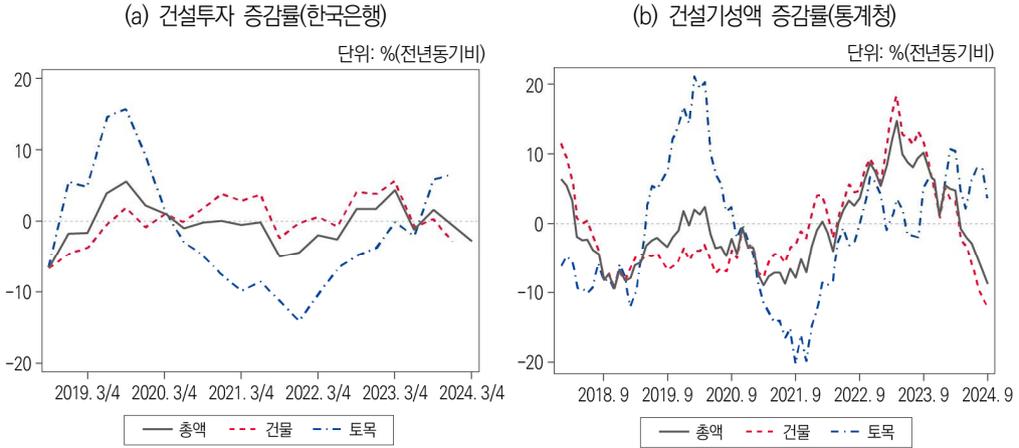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건설투자		1.5	1.7 (0.6)	1.7 (0.2)	4.3 (1.9)	-1.2 (-3.8)	1.6 (3.3)	-0.5 (-1.7)	-4.9 (-2.8)
형태별	건물건설	3.1	4.1 (1.0)	3.8 (1.6)	5.6 (1.5)	-0.9 (-4.7)	0.2 (1.9)	-3.0 (-1.4)	
	주거용 건물	4.5	6.5 (5.2)	3.8 (2.6)	6.9 (-0.6)	0.9 (-6.0)	-1.0 (3.0)	-4.8 (-1.0)	
	비주거용 건물	1.8	1.5 (-2.7)	3.8 (0.7)	4.4 (3.6)	-2.4 (-3.6)	1.5 (0.9)	-1.3 (-1.7)	
	토목건설	-2.8	-4.9 (-0.5)	-3.9 (-3.8)	-0.1 (3.0)	-2.2 (-0.9)	5.7 (7.5)	6.5 (-2.7)	
주체별	민간	1.4	2.3 (1.7)	1.8 (1.3)	4.0 (0.7)	-2.5 (-5.4)	-0.6 (2.9)	-2.6 (-0.4)	
	정부	2.4	-1.1 (-3.8)	1.1 (-4.0)	7.2 (7.4)	2.4 (2.8)	11.8 (4.8)	6.9 (-6.8)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4년 3분기는 속보치.

2)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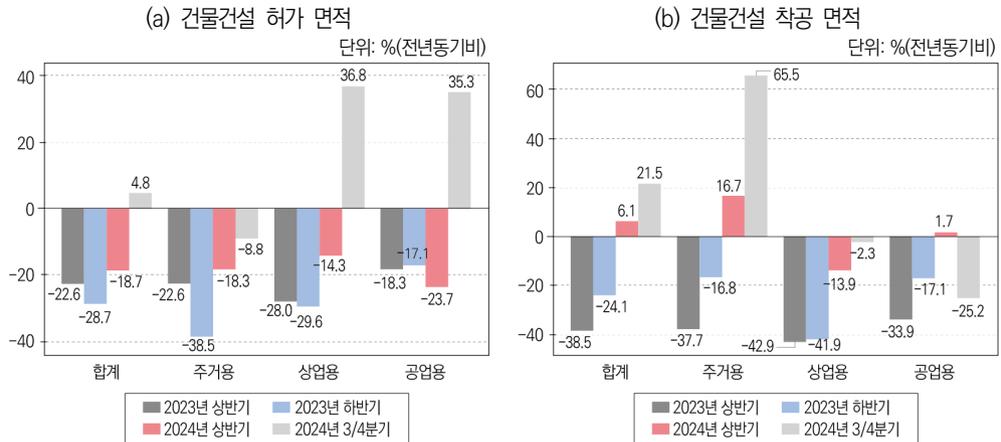
〈그림 1-18〉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2024년 3분기 건물건설의 허가 및 착공 면적은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일시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거용 허가 면적과 상업·공업용 착공 면적이 부진한 모습

〈그림 1-19〉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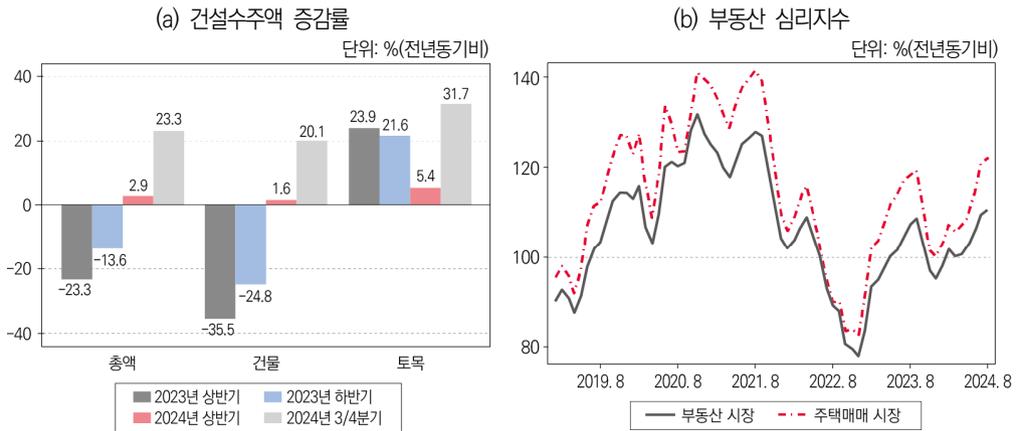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4년 상반기 증가세로 전환되고 3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점이 긍정적이나,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1년 이상의 시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 2023년도 급감한 수주액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심리지수가 2024년 중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향후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1-2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국토연구원.

○ 2025년 건설투자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과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

- 2025년 SOC 분야 예산은 2024년 대비 3.6% 감소(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1-13〉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0.4	-3.5	-1.6	-3.3	1.3	-0.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4) 수출입(통관 기준)

□ 2024년 동향: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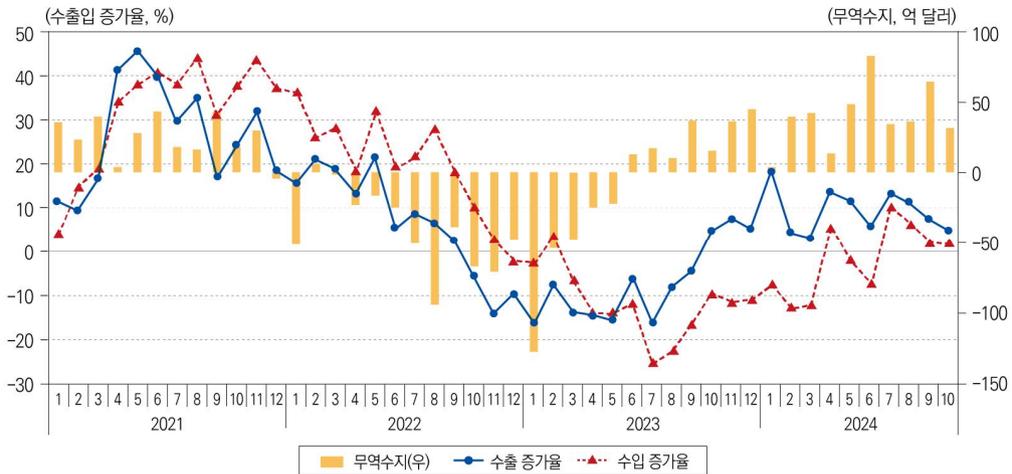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조정 되는 모습

- 수출은 반도체가 50%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이고, 수입은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0월까지 누적 395억 달러

· 수출(전년동기비, %): (2023년) -7.5 → (2024. 1/4) 8.1 → (2/4) 10.1 → (3/4) 10.6 → (10월) 4.6

· 수입(전년동기비, %): (2023년) -12.1 → (2024. 1/4) -11.0 → (2/4) -1.4 → (3/4) 6.2 → (10월) 1.7

〈그림 1-21〉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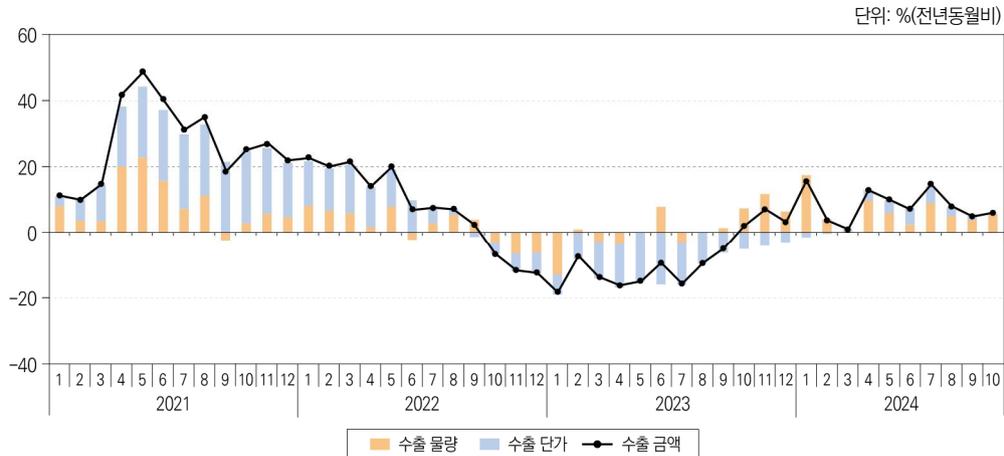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4년 수출은 단가와 물량이 동반 상승하였고, 수출 물량은 IT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1분기부터 6%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

- 수출 단가 상승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가격 상승과 반도체,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물량도 증가

- 수출 물량(전년동기비, %): (2023년) 1.0 → (2024. 1/4) 6.8 → (2/4) 6.0 → (3/4) 6.0
- 수출 단가(전년동기비, %): (2023년) -9.3 → (2024. 1/4) -0.3 → (2/4) 3.9 → (3/4) 3.0
- 무역수지(억 달러): (2023년) -104 → (2024. 1/4) 85 → (2/4) 145 → (3/4)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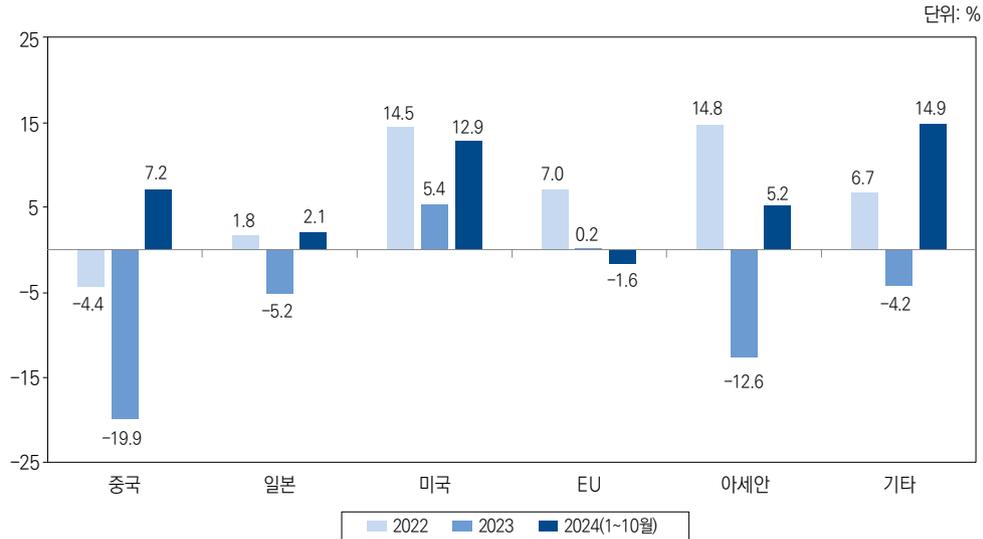
〈그림 1-22〉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저자 작성.

- 지역별 수출을 보면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대EU 수출은 EU 주요국들의 경기 부진으로 감소세
 -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및 IT 품목의 수출 호조로 2024년 들어 12.9% 증가하고,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임.
 - 대EU 수출은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들어 감소 양상이 이어졌으나 7월부터 증가 전환
-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40%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IT 품목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철강, 섬유 등 소재산업의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
 - 반도체는 글로벌 IT 경기 회복과 AI 수요 증가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의 부진에서 벗어나 50%의 증가율을 기록

〈그림 1-23〉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14〉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자동차	31.1	2.7	4.8	-3.2	-0.4	-9.2	-4.4	4.9	5.5
자동차부품	-1.6	-0.5	-4.8	-2.6	-11.7	2.3	-3.6	-6.6	5.9
선박류	19.9	57.4	4.3	35.1	-39.8	-36.5	77.8	75.2	-28.4
일반기계	4.6	0.3	-4.1	-2.2	-8.3	12.6	-5.9	-13.4	-8.1
철강	-8.5	-5.6	-14.4	-3.9	-24.3	-5.2	-2.0	-4.5	8.6
석유화학	-15.9	0.0	10.8	7.6	11.9	18.4	6.5	-1.3	9.9
석유제품	-17.3	4.3	11.5	-3.0	10.5	15.7	-2.0	-18.6	-34.9
섬유	-11.3	-7.0	-3.1	-4.1	-11.2	1.2	-5.0	-8.5	2.4
가전	-1.0	1.6	5.4	-3.5	-0.3	9.1	-4.9	-14.0	5.0
무선통신기기	-10.2	-9.8	8.2	36.5	3.8	53.3	50.1	16.5	19.7
컴퓨터	-53.3	26.3	58.9	118.9	58.9	61.7	181.6	132.0	54.1
반도체	-23.7	50.7	53.5	41.4	50.9	50.2	38.8	37.1	40.3
디스플레이	-12.1	12.5	19.5	-2.4	26.0	2.4	-4.9	-4.3	-22.7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15〉 가공 단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3			2024(1~10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6,426	-12.1	100	4,719	-2.1	100
1차 산품	1,464	-19.1	22.8	1,079	-2.0	22.6
(원유)	862	-18.7	13.4	662	3.3	13.8
중간재	3,268	-12.0	50.9	2,387	-2.8	50.6
자본재	829	-7.0	12.9	618	0.8	13.2
소비재	839	-4.0	13.1	615	-2.5	13.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는 전년도에 하이브리드차 수출 수요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들어 전기차 수요 정체 및 고물가 지속 등의 여건 악화로 증가폭이 둔화
- 선박류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증가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 철강 수출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요 선진국의 건축 기조로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석유화학은 기저효과와 주요 시장 내 공급과잉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가세 유지
- 수입은 연초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하락으로 1차 산품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내수 부진 등으로 소비재도 감소하면서 2.1% 감소
- 다만, 전년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로 인해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중간재 수입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본재 수입은 증가세로 전환
- 2025년 전망: 수출 2.2%, 수입 2.1% 증가, 수출 증가세 유지되면서 무역흑자 규모 소폭 확대
- 2025년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IT 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IT 기기 수요의 점진적 증가와 DDR5, HBM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2025년에도 8.5%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표 1-16〉 2025년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 기준 수출	6,322 (-7.5)	3,354 (9.3)	3,500 (7.6)	6,855 (8.4)	3,396 (1.2)	3,606 (3.0)	7,002 (2.2)
통관 기준 수입	6,426 (-12.1)	3,119 (-6.4)	3,262 (5.5)	6,381 (-0.7)	3,147 (0.9)	3,369 (3.3)	6,516 (2.1)
무역수지	-104	236	238	474	228	259	487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주: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5년 수입(통관 기준)은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나, 수출 증가에 따른 중간재 수요 확대 효과로 소폭 상승할 전망
- 2024년 초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 금액이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25년 수입은 중간재 수입 증가와 함께 소폭 증가할 전망
- 2025년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보다 소폭 확대된 4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참고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경제적 영향

- 미국 차기 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각국에 보편적 관세를 10%(혹은 20%), 중국에는 60~100%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2024. 8. 14)
 - 이러한 보편적 관세 부과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본 참고에서는 무역 데이터를 활용,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수출과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
- 수출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8.4~14.0% 감소 추정
- 기준 시나리오: 미국 주요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은 60%의 관세 부과
-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영향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약 55억 달러(-8.4%) 감소하며, 관세 변화에 따라(보편관세가 20%로 상승 등) 최대 93억 달러 감소(-14%)하는 것으로 추정
 - 전반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의한 미국 내 수입시장의 규모 감소가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다만,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약 2.2~2.6%포인트(2021~2023년 평균 수출액 대비)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 시나리오별 수출 감소액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수출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약 0.1~0.2%포인트 감소
- 부가가치 감소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관세 규모에 따라 10~16% 감소하였으며, 전 산업 감소분에서 16.2% 이상을 차지

부록. 보편적 관세 영향 추정 방법

○ 분석은 아래의 세 단계로 수행

- ① 보편적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수입시장 축소 효과(수입시장 규모 효과) 추정 → ② 한국의 주요국 대비 관세 변화로 인한 점유율 효과(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 효과) 추정 → ③ 추정된 대미 수출 변화와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 유발계수를 활용하여 경제성장률 변화 추정

- 보편적 관세의 효과는 해당 품목의 미국 수입 변화분(수입시장 규모 효과)과 미국 수입시장 내에서 한국의 점유율 변화(경쟁력 효과)로 구분하고 두 효과를 합산한 결과

① 수입시장 규모 효과 추정을 위해 다음의 식 (1)을 추정

- 미국의 품목별 대세계 수입가격 탄력성을 이용하여 관세 인상의 미국 수입시장 축소 효과를 추정

$$Imp_{i,t}^{US} = \beta_{i,1} p_{i,t}^{Wld} + \beta_{i,2} IPI_t^{US} + \sum_{k=1}^L \gamma_{i,k} Dollar_t + \Theta_i X_t + u_{i,t} \quad (1)$$

- $Imp_{i,t}^{US}$ 는 미국의 i 품목 t 시점 대세계 수입 물량, $p_{i,t}^{Wld}$ 는 i 품목 대세계 수입가격, IPI_t^{US} 는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Dollar_t$ 는 미국 달러지수, X_t 는 이 외 통제변수벡터(시간 더미변수 등)를 의미

- 수입가격 변화로 인한 수입 물량 변화는 $\beta_{i,1}$ 로 나타나며, t 기의 관세 변화를 고려한 수입 물량 변화는 다음과 같음.

$$\Delta Imp_{i,t}^{US} = \frac{\beta_{i,1} \Delta tariff_{i,t}}{(1 + tariff_{i,t-1})}$$

②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 효과는 다음의 식 (2)로 추정

$$MS_{i,t}^{kr} = \sum_{r \in \text{주요국}} \delta_{i,r} r p_{i,t}^r + \sum_{k=1}^L \sum_{r \in \text{주요국}} \psi_{r,t-k}^i ex_{t-k}^r + \Theta_i X_t + u_{i,t} \quad (2)$$

- $MS_{i,t}^{kr}$ 는 한국의 i 품목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을 나타내며, $rp_{i,t}^r$ 는 주요국 i 품목에 대한 주요국 r 과 한국의 상대가격, ex_{t-k}^r 은 주요국 r 의 환율, X_t 는 이 외 통제 변수벡터(시간 더미변수 등)를 의미
- 추정된 $\delta_{i,r}$ 을 통해 수입시장 규모에서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한국의 점유율 변화분을 계산, 식 (1)을 통해 추정된 시장 축소 효과와 식 (2)의 점유율 변화의 합으로 관세 부과 총효과 추정
- 본 연구의 모형은 관세 변화에 의한 대미 수출의 직접적인 효과만 측정한 부분균형모형으로 간접수출, 세계 교역 감소 등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음.
- 간접수출(타 국가들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우리 중간재 수입 감소 등)과 세계 교역 위축 등은 우리 수출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

〈참고 2〉 금리 인하와 민간소비

- 금리와 소비는 부(-)의 관계를 보이면서 금리 하락기에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경향
- 2009년부터 2024년 3분기(9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금리와 소비의 상관계수는 음(-)으로 추정
 - 금리와 음(-)의 상관관계는 가계대출금리(소매판매지수, -0.63)와 주택담보대출금리(소매판매지수, -0.67)에서 크게 나타남.

금리와 소비의 상관계수

	민간소비(분기)	소매판매지수(월별)
단기시장금리	-0.15	-0.31
가계대출금리	-0.48	-0.63
주택담보대출금리	-0.55	-0.67
신용대출금리	-0.35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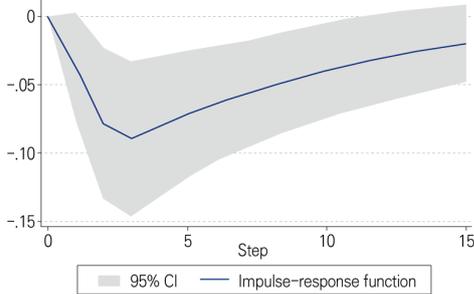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지수는 계절조정된 실질변수로 2009년부터 2024년 3분기(9월)까지의 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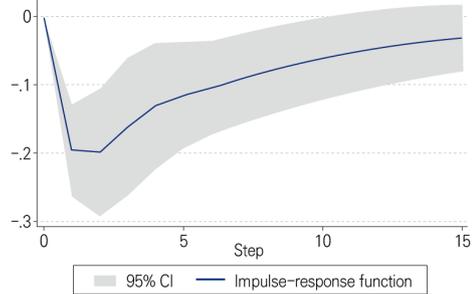
- 향후 금리 인하는 민간소비 회복에 긍정적이나 높은 가계부채, 낮아진 유동성 등으로 그 효과는 지연되거나 제한적일 가능성
- 단기시장금리 변화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에 모두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
 -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신용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빠르고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²⁾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소비의 긍정적 영향에는 시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2) 예금취급기관 대출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약 70%를 차지(2010년 이후 월 평균).

단기시장금리 1%p 하락 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IRF)



단기시장금리 1%p 하락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IRF)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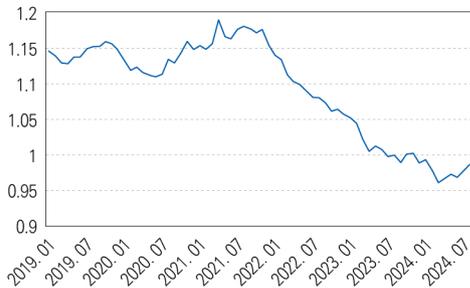
주: 1) 단기시장금리는 KORIBOR 3개월,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는 잔액 기준.

2) 구조형 VAR(S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 또한 높은 가계부채와 낮아진 유동성은 금리 인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

- 2019년 이후 가계 예금/대출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통화승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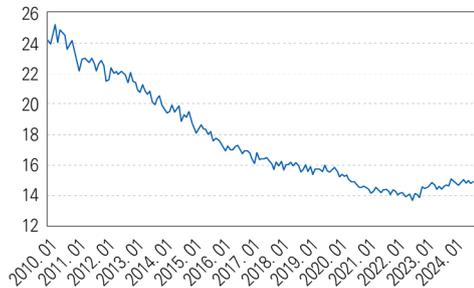
예금/대출 비율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가계예금과 가계대출 비율을 이용하여 작성.

통화승수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M2 통화량/본원통화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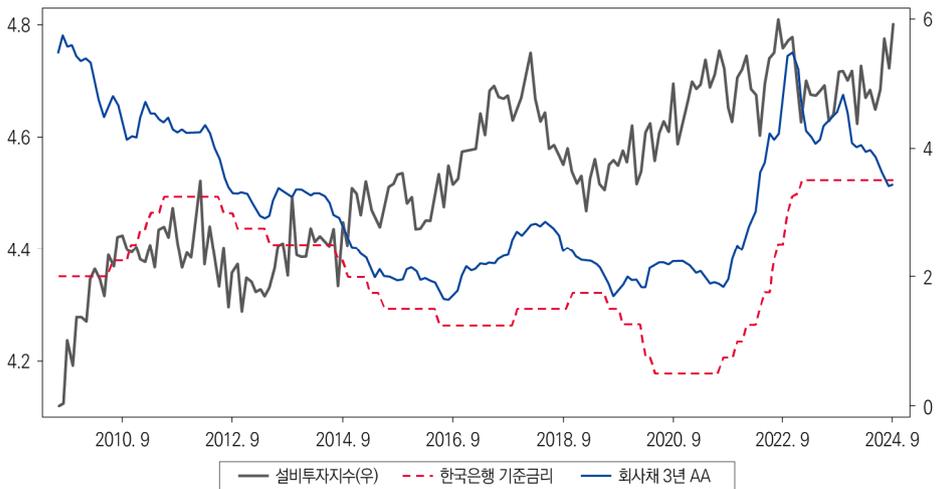
○ 최근 실질소득 증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에도 민간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미시적인 정부 정책이 요구

- 소비 여건 개선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비 쿠폰 및 바우처 제공, 유류세 연장 및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미시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참고 3〉 금리 인하와 설비투자

- 향후 설비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하락,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최근 회사채(3년AA) 금리 추이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0.25%p)는 향후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

설비투자지수와 금리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주: 설비투자지수는 통계청 계절조정 총지수의 로그값.

- 코로나 위기 이후, 시장금리와 설비투자지수의 관계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
- 이는 향후 금리 하락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지연되었던 설비투자 집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
- 다만,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³⁾

3) 박영준·엄주영(2017)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는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는 금리보다는 수요 요인인 총생산, 주가지수, 환율,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 박영준·엄주영(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설비투자 결정요인 변화”, 한국은행 경기본부.

설비투자자과 금리의 관계

		코로나 위기 이전	코로나 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
기간별 시장금리의 평균과 표준편차				
시장금리 평균(%)		3.12	2.78	4.13
시장금리 월평균 증가율(%)		-0.03	0.09	-0.09
시장금리 월평균 증가율의 표준편차		0.13	0.21	0.22
시장금리와의 상관관계				
총지수		0.24	-0.11	-0.71
부문별	기계류	0.27	-0.22	-0.69
	운송장비	0.00	0.15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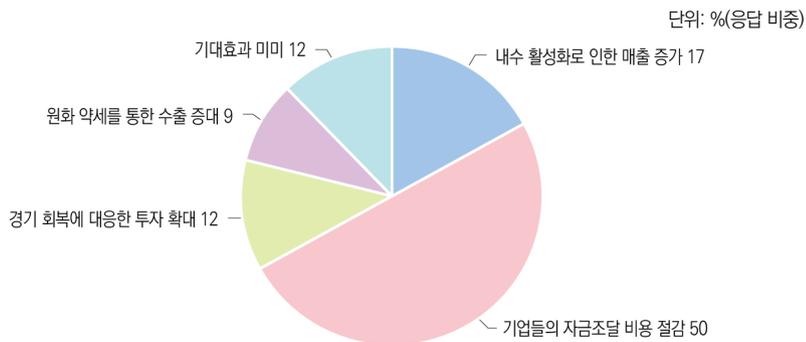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주: 부문별 설비투자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감률과 시장금리(회사채 AA등급 3년 만기)의 상관관계를 계산. 코로나 이전은 2009년 7월~2019년 12월, 코로나 위기는 2020년 1월~2022년 12월, 코로나 위기 이후는 2023년 1월~2024년 9월로 정의.

□ 국내 제조업체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금리 인하 효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에 기대하는 바가 가장 크게 나타남.⁴⁾

○ 국내 제조업체들이 예상하는 국내외 금리 인하 효과로 ‘자금조달 비용 절감’ 응답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내수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17%)’, ‘경기 회복에 대응한 투자 확대(12%)’,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 증대(9%)’ 순으로 많이 응답

국내외 금리 인하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



자료: 산업연구원(2024).

4) 산업연구원(2024. 9)에서 2024년 9월 전국 13개 업종 사업체(1,500개)를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인하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산업연구원 보도자료(2024. 10),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2024년 3분기 현황과 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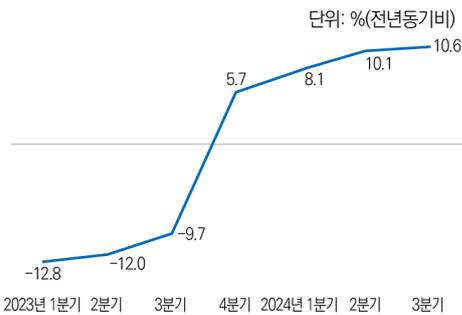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12%로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 금리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기업 경영 여건도 일부 개선되면서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

○ 2024년 들어 수출이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실적도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이 2024년 1, 2분기 모두 10% 이상 증가하고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확대되는 흐름

한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 산업	2.8	3.6	4.0	2.6	5.4	6.2
제조업	2.5	2.9	4.0	1.8	5.4	7.1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영업이익률은 기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으로 계산.

□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 요구

○ 최근 수출 경기 회복, 금리 인하, 기업 수익성 증가 등의 국내 경제 여건은 설비투자에 긍정적이나 미·중 통상 마찰의 심화 가능성,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등은 설비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

-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투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이 요구됨.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5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세계 수요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종재 소비 및 중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정체되고 전 세계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우 사태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은 2025년에도 세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

- 지능형 스마트 제품·서비스 확산,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와 더불어 주요 제품의 교체 수요로 인한 글로벌 ICT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소재 시장은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 영향과 공급과잉 압력의 경감에 따라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고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매출은 2025년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전년 대비 2~3%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전기차 판매량 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 정체는 지속될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수요는 내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기계, 철강, 가전), AI 서버 교체

수요 발생(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처방 확대(바이오헬스) 등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

- 다만, 대기 수요 해소(자동차), 전기차 판매 둔화(이차전지) 등의 부정적 요인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유럽 시장에서는 구매 수요 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 가능성, 노후설비 구조조정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이차전지 수요에 대한 긍정적 여건 발생이 예상
-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지속과 유럽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운송비용 상승 등은 본격적 수요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
- 중국 시장에서는 2025년에도 성장 정체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등의 수요가 부진할 전망이나, ICT 수요가 호조세로 전환되고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로 국산 중간재(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요 개선 기대
- 단,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한 중국 전반의 추가적인 시장 위축 가능성은 상존

〈표 2-1〉 2025년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

단위: %

	국가	비중 ¹⁾	전망	국가	비중	전망	국가	비중	전망
자동차	미국	46.8	☹	EU	15.4	☹	중동	6.2	☹
일반기계	미국	29.7	☼	중동, 중남미	13.6	☼	중국	13.1	☹
철강	아세안, 인도	26.2	☼	EU, 러시아	13.4	☹	일본	13.3	☹
정유	아시아 (중국 제외)	75.8	☹	미국	10.4	☹	중국	7.0	☹
석유화학	중국	40.0	☹	아세안	15.0	☹	기타	15.0	☼
섬유	베트남	20.0	☹	중국	13.5	☹	미국	13.2	☹
정보통신기기	중국	29.4	☹	미국	20.9	☼☼	EU	16.2	☼☼☼
가전	미국	49.3	☹	EU	9.3	☹	중국	6.2	☹
반도체	중국	33.7	☼☼	홍콩	19.7	☼☼	베트남	13.4	☼☼
디스플레이	베트남	59.5	☹	중국	26.6	☹			
이차전지	미국	44.9	☹	EU	16.1	☹	중국	5.3	☹
바이오헬스	EU	18.2	☹	미국	16.3	☼☼	중국	11.3	☹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4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신흥지역의 경우 인도는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에도 철강, 화학, 기계류 등의 소재·부품 수요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베트남은 IT 수요 성장에 대응한 부품 수요가 주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중동),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중남미)에 따라 관련 산업 수출의 지속 증가 예상
- (제품 단가 변화) 2025년 국내 주요 수출제품의 단가는 기존 제품의 고급화 경향 등에 의한 상승 요인이 존재, 단,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IT 부문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는 판매 단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공통적으로 수익성 보전을 위한 차별화, 친환경·디지털화 대응에 따른 제품의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철강·석유화학에서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 영향으로 소폭의 단가 상승이 예상되나, 반도체, 조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초격차를 보유한 산업의 경우 중국의 경쟁력 신장에 따라 시장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
- (해외 생산 전망) 2025년에도 주요 산업의 해외 생산은 국내 생산비용 증가, 무역장벽 및 물류비용 증가와 인도 등 현지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편 중국 현지 생산 규모는 지속 감소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진행은 계속될 전망
 - 자동차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으로 미국 현지공장 가동률 상승이 예상, GM으로부터 인수한 인도 공장의 가동도 예정
 - 조선은 중국에 블록공장을 보유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중국 생산이 국내 기자재의 높은 가격과 사외 협력사 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일반기계 해외 생산은 북미지역의 가스연소기기와 인도지역의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나, 중국 현지공장 생산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위축이 예상
 - 철강산업의 해외 생산은 북미, 인도 등 수요 지역에서의 현지 조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능력 확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
 - 석유화학 해외 생산 규모는 국내 기업이 경영 성과 악화로 아세안 시장 내 생산시설 구조 개편에 착수하면서 축소될 전망

〈표 2-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제품 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른 차량 단가 상승	☼
	·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관세 상승 가능성	☼
	· 수익성 보전을 위한 차량 옵션 고급화 및 대형화	☼
조선	· 선가의 20% 내외 및 기자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재의 저가 중국산 유입 지속	⬆
	·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에 따른 조선사 간 경쟁 심화	⬆
	· 국내 주요 기자재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인건비 상승	☼
	· 중국 조선사의 대규모 수주와 우량 조선사의 풍부한 수주 잔량에 따른 선별 수주	☼
	· 장납기에 따른 위험비용의 선가 반영	☼
철강	· 원료 가격의 변화	☼
	· 중국 철강재의 내수 가격 상승	☼
	·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공급 과잉	⬆
정유	· 국제유가 하락	⬆
	· 정제마진 상승	☼
	· 유럽 등 OECD 국가의 석유제품 소비 감소	⬆
	· 항공유 및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중심의 전반적 수요 확대	☼
	· 친환경차 보급으로 인한 운송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세 감소	⬆
	· 중국, 인도 및 중동 국가 중심의 석유제품 공급 확대	⬆
석유화학	·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
	· 시장 수급 상황(제품 스프레드 소폭 확대)	☼
섬유	·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유가, 화석원료, 염료 등)	⬆
	· 중국발 초저가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및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력	⬆
	· 고기능성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의한 단가 상승	☼
정보통신기기	· 세계 SSD 시장에서 제품 경쟁 확대 및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등으로 단가 하락 가능성	⬆
	· 대량 전력 소비가 적은 대용량 QLC(Quad Level Cell) SSD 시장 성장 및 SSD 고사양화	☼☼
	· 스마트폰 및 PC 고급화(AI 기능 내재화, 카메라 기능 고도화, 슬림화·경량화 등)	☼
가전	· AI 가전 수요 확대	☼
	· 프리미엄 제품 생산·수출 증가	☼
	· 선진권(미국, EU 등)의 '가성비 트렌드' 확산	⬆
	· 해상 물류비용 증가	-
반도체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감산 유지	☼
	· DDR5, HBM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
	·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채용 확대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디스플레이	· IT용 패널을 비롯한 대형 패널 비중 확대	☼
	· 폴더블 패널 수요 위축	⬆
이차전지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광물) 가격 하락 추세 둔화	☼
	· 중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LFP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기업의 물량 공세 강화	⬆
바이오헬스	· 미국, 바이오시밀러 친화 정책 추진	⬆
	· 글로벌 CDMO 생태계 재편으로 경쟁 심화	☼
	· AI 등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개발비용 절감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섬유 기업의 해외 생산은 국내 생산 경쟁력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투자가 확대되며 중국 내 생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기기는 IT 수요 증가에 대응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 거점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부품 수출 수요를 유발할 전망
 - 국내 스마트폰 · PC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동유럽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2024년 이집트 스마트폰 공장을 신규 구축하고 2025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
- 가전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한 해외 생산 확대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특히 설비투자가 활발하고 시장 수요에 인접한 미국 · 중남미 · 동유럽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될 전망
-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중심의 중국 공장 생산 확대가 예상, 파운드리 부진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 해외 생산은 광저우 LCD 라인 매각으로 인하여 대폭 축소 예상
- 이차전지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 거점의 신 · 증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5년에는 한국 기업의 북미 신규 공장이 가동되고 EU의 CO₂ 규제 강화에 따른 헝가리 · 폴란드 공장 생산도 증가할 전망
 - 2024년 현재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생산 CAPA는 국내는 12%에 불과하고 유럽(36%), 중국(33%), 미국(15%) 등 해외 비중이 8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표 2-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멕시코(∞)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인도(☆)
조선	중국(∞) 베트남(☆☆)
일반기계	중국(↑↑) 미국(☆) 인도(☆)
철강	유럽(●) 아세안(●) 북중미(∞) 인도(∞) 중국(●)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 미국(∞)
섬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가전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중국(∞) 미국(☆)
반도체	중국(☆) 미국(∞)
디스플레이	중국(↑↑)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
바이오헬스	중국(↑) 미국(☆☆) 동남아(☆)

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바이오헬스는 CDMO 인수, 신규 생산공장 설립 확대로 유럽과 미국 내 생산 증가가 예상, 반면 복수의 국내 제약사가 중국 법인을 청산·매각하는 한편 동남아지역에 현지 법인을 신설·이전하면서 아시아 권역 내 생산설비의 재조정이 진행될 예정

□ 국내 공급능력은 첨단·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소폭 확대 예상, 중국의 추격과 과잉 생산은 2025년에도 주력산업의 수출과 내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전망, 미 대선 결과도 우리 수출과 생산에 긍정과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이슈

○ (공급능력 여건) 전기차, 첨단섬유 및 바이오 등 신성장 유망 분야 관련 공급능력의 확대가 예상되며 AI·DX 전환과 그린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조선, 철강, 정유, 반도체 분야의 관련 투자는 지속될 전망

-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2024년 수도권에 연간 15만 대 수준의 전기차 및 PBV 전용 생산설비가 완공되어 2025년 본격 가동될 예정
- 조선은 전반적으로 생산 규모는 유지되지만, 컨테이너선 생산은 감소하고 LNG운반선을 중심으로 가스운반선 생산이 증가하면서 선종 변화에 따른 투자와 특정 선종의 공급능

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건조량의 고수준 지속에도 외국인 및 비숙련 인력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 가능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지속
- 철강 공급능력은 2024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친환경 신제품 수요 대응, 기존 설비의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는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 특히 고부가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될 전망
- 정유는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COTC(Grude Oil to Chemicals) 설비투자가 지속되고 페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신설을 중심으로 바이오 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
- 석유화학의 2025년 설비투자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로 대규모 생산 설비 신·증설보다는 기존 설비 유지보수 및 다운스트림 제품 연구개발 등에 집중될 전망
- 섬유산업은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 대응 목적으로 태광산업(아라미드) 및 도레이첨단소재(아라미드, 탄소섬유)의 설비 증설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나 범용 부문의 경우 공급능력을 확대할 유인이 없는 상황
- 정보통신기기는 SSD, 카메라모듈 등 국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가 확대될 전망
- 가전의 국내 생산은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원가경쟁력을 갖춘 해외 생산 비중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산능력은 지속 감소할 전망
- 반도체는 재고가 적정 수준인 상황으로 이에 설비투자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나 AI 서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HBM과 고부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는 지속 증가할 전망
- 디스플레이는 탈LCD 전략으로 인한 생산 규모 축소가 2025년에도 소폭 이어질 전망이며, IT용 OLED 패널 전용 설비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구축 중으로, 2025년 말에는 시범 가동을 위한 파일럿 라인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

〈표 2-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전기차 전용 생산설비 본격 가동	☼
	· 중견 완성차 업체 전동화 전략 강화로 제품 및 생산설비 전환	☼
	·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국내 완성차 업체 해외 생산 물량 증가	⬆
조선	· 특정 선종 건조 증가에 대응한 설비투자 확대	☼
	· 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기술 및 설비 확대	☼
	· 외국인, 비숙련 인력에 따른 숙련 형성 시간 필요와 안전 강화 노력에 따른 영향	⬆
철강	· 기업 수익성 하락	⬆
	· 유망 신제품 생산 및 친환경 공정 전환을 위한 신·증설	☼
정유	· 상반기 정제마진 약세 지속	⬆
	· 하반기 정제설비 가동을 상향 조정	☼
석유화학	· 공급역량 변화(해외 감소)	⬆
	· 생산시설 가동률(소폭 상승)	☼
	· 주요 제품 스프레드(소폭 확대)	☼
섬유	·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	☼
	· 생산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소 및 폐업 등 공급능력 감소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정보통신기기	· AI 인프라 구축 수요 확대로 국내 SSD 생산능력 확대 투자	☼
	· 카메라모듈의 국내 및 해외 생산능력 확대 투자 추진	-
	· 스마트폰, PC 등 완제품의 해외 생산 확대	⬆
가전	· 생산 효율화(스마트공장 구축)	☼
	·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생산 구조	☼
	· 해외 공장 신·증설,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반도체	· 미세공정 전환 및 적응화 기술 발달	☼
	· 신규 생산공장 건설	☼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 지속	⬆
	· IT용 OLED 패널 전용 설비 구축	☼
이차전지	· 이차전지 기업의 국내 신규 공장 건설	☼
	· 국내 전기차 생산 및 내수 위축	⬆
	· IRA 등 주요국의 자국내 공급망 구축 정책에 따른 투자 역량의 해외 집중화	⬆⬆
바이오헬스	· 신약 개발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CDMO 신사업 진출	☼☼
	· 신규 모달리티 관련 R&D 투자 확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이차전지는 국내 공급능력은 전기차 생산 위축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나 예정되어 있는 오창과 서산의 일부 신규 설비 가동은 국내 공급능력 확대에 일정 정도 기여할 전망
- 바이오헬스는 적극적인 설비투자과 더불어 기술 수출에 따른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신약 개발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CDMO 신사업 진출에 따라 2025년에도 국내 공급역량의 확대가 나타날 전망
- (주요 이슈: 미 대선 결과) 미 대선 결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전망, 다만 정책의 시행 시기 및 효과의 발생 시차 등을 고려 시 주요 산업의 2025년도 수급 실적에의 반영 여부는 불확실
- 자동차 및 이차전지산업은 보편관세 부과와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후퇴가 실현될 때 수출과 생산의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전망
 - 자동차는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 업체 경쟁력 상승으로 신규 시장 개척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편적 관세 부과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연비 규제 폐지 적용 시 국내 생산 및 수출 감소와 더불어 전통차 관련 부품 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
 -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Section 30D)가 축소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수요 둔화로 국내 이차전지 투자, 수출, 내수 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 예상
- 반면 대중국 견제의 반사이익으로 조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긍정적인 영향 발생을 기대할 수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의 수출 증가도 예상
 - 조선산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특수선 MRO 및 신조선 관련 한·미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특수선 사업을 진행하는 조선사의 사업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중국 해운, 물류 및 조선산업에 대한 견제 가능성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
 -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이 추가되고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에 중국 패널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표 2-5〉 2025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영향

	영향 요인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수출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보편관세 부과 시 수출 및 생산 감소 · IRA 폐지 및 환경규제 완화로 기구축 전기차 생산 관련 설비 규모의 경제 발생 지연
	생산	XX	
조선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해군 MRO 및 특수선 시장 확대 · 미국의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따른 반사이익
	내수	□	
일반기계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일반기계 수요 증가로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및 생산 증가가 국내 투자·생산을 일부 구축하여 내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내수	X	
철강	수출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국내 철강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쿼터가 이미 시행 중으로, 대미국 직접수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단 조강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쿼터할당량 축소 등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시, 주요 수출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해당 국으로의 수출은 감소 전망 · (내수) 국내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대미국 수출 감소, 기계 및 조선은 수출 확대 가능성으로 수요산업 영향은 복합적, 다만 국내 수입 증가 가능성으로 내수 영향은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내수	X	
정유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의 친석유 정책에 따른 유가 하향 안정화 및 석유제품 수요 확대 · 미국 내 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한 수출 경쟁 심화 · 최근 미국 내 노후 정제설비 폐쇄 지속으로 생산량 확대는 제한적
	내수	○	
석유화학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 및 석유화학 관련 환경규제 완화 ·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로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 및 미국향 수출 규모 확대
	내수	□	
섬유	수출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선반영된 저유가, 고풍율, 높은 시장금리의 효과가 상충되어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미 수출의 하방 압력 발생 · 미국 내 자국산 소재 수요 확산 분위기 조성으로 한국산 소재 수요 위축 · 미·중 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탈중국 및 베트남 등 미국의 우방지역으로 섬유 해외 생산 가속화
	생산	X	
정보통신기기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로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 반사이익 예상 · 중국에서 애국 소비 확대 시, 외산 제품 판매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 · 단, 중국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PC 점유율이 매우 낮아 영향은 제한적
	내수	□	
가전	수출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관세 인상, 자국 생산 확대 등) 우려는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 트럼프 1기는 2018년부터 대형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출제한조치 발동
	생산	X	
반도체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 부과 및 대중국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반도체산업에서는 일부 반사이익 기대
	내수	○	
디스플레이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 영향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생산 둔화 가능성이 높으나, 2025년 이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음
	내수	○	
이차전지 (IRA 축소)	수출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A Section 30D에 규정된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및 Section 45X에 규정된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AMPC)의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 ·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이차전지 수요 둔화, 우리 기업의 국내외 투자의 전면적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내수	X	
이차전지 (보편관세 도입)	수출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공약 사항이었던 10% 보편관세가 이차전지 및 배터리 소재에 부과될 경우 수출 단가 상승 불가피 · 10% 관세 부과 시 미국 생산 물량이 더욱 확대돼 수출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트럼프가 공약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
	내수	X	
바이오헬스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시밀러 우호정책은 수요를 진작시키나 시장 내 경쟁 심화로 가격 인하 요인도 동시에 작용 · 필수약품 및 기초약품에 대한 글로벌 가격 인상에 선제적 대비 필요
	내수	X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기조는 국내 패널 기업의 점유율 방어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기기는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대중 견제가 더욱 강화되고, 관련 조치가 2025년 내에 이루어질 경우 세계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예상
- 일반기계는 재생에너지 및 그린 전환 관련 투자의 위축· 지연으로 관련 기계장비· 부품 및 친환경 냉매 기반 공조시스템 등의 수출은 부정적일 수 있으나, 신규 공장 건설 및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공작기계· 건설기계· 펌프류· 금형 등의 수출 증가와 화학연료 생산 확대와 관련된 가스터빈· 천공기 품목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

○ (주요 이슈: 산업별) 미 대선 결과의 영향 이외에도 중국의 과잉공급 및 경쟁력 상승 등 주로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2025년 국내 13대 주력산업이 직면하게 될 업종별 주요 이슈일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철강, 정유,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향상과 내수 부진에 따른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 여력의 감소,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국내 내수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이는 2025년에도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주요 이슈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 소비 확대 추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점유율 축소, 단가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섬유는 중국 쇼핑 플랫폼의 세계 수출시장 잠식 가속화로 국산 의류 수출 및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전망
- 최근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급속한 점유율 확대에 따라 중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세계 반도체 단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 바이오헬스의 경우 미국에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생물보안법 입법화가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 국내 기업들이 체감할 수준의 수혜 효과가 발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출에서는 중립적 영향이 예상

〈표 2-6〉 2025년 산업별 기타 주요 이슈 및 영향

	주요 이슈	영향 요인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중국발 공급과잉	수출	X	· 중국 업체의 유럽 및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우리 업체와 경쟁 심화 ·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내 시장 진입으로 중국산 차량 내수 점유율 확대 우려
		생산	X	
	전기차 수요 둔화	수출	□	
		생산	□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	X	· (수출) 미국, 캐나다 등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및 관련 규제 강화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내수) 국내에서는 중국, 베트남산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조사를 개시, 수입제에 대응 중
		내수	○	
정유	중국의 생산 및 수출량 확대	수출	X	· 중국의 신규 정제설비 및 수출쿼터 확대 · 러시아 원유의 수입 확대(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따른 경쟁력 확보)
		생산	X	
	OECD 국가 중심의 노후 정제설비 조정	수출	○	
		내수	○	
석유화학	중국 자급률 증가	수출	X	·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수입 수요 감소 · 내수 시장 내 중국산 화학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내수	□	
섬유	중국 쇼핑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확대	수출	X	· 세계 수출시장 잠식 가속화로 국산 의류 수출 및 생산 감소 우려 · 국내 경기 성장세 완화에 따른 가성비 소비 확대로 수입 증가 및 내수 성장
		생산	X	
정보 통신기기	온디바이스 AI 확산 (AI 내재화)	수출	○	· AI 서비스 보편화로 필수 인프라인 AI 서버 등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SSD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성숙기의 세계 스마트폰·PC 시장에서 2025년 생성형 AI 기술이 고급형·보급형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가전	AI 가전 수요 확대	수출	○	· 한국 기업이 경쟁을 지닌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AI 가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수출과 생산에 긍정적 요인
		생산	○	
반도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증가	수출	X	·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임에 따라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우리 제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저가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다만, 이러한 연장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단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내수	□	
디스플레이	중국 내 애국 소비 확대	수출	XX	· 중국 내 스마트폰의 애국 소비 지속으로 중국 패널 기업의 역량 상승으로 나타남 · 중국 수요 기업의 한국 패널 기업 사용 비중 축소와 주요 수요 기업에 중국 패널 기업 납품이 이어지고 있어 점유율 축소 지속
	주요 수요 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출	◎	
바이오헬스	생물보안법 입법화	수출	□	· 국내 기업이 수혜 효과를 체감할 정도의 초단기적인 영향은 미미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 수출: 전년에 이어 IT산업이 13대 산업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예상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IT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이어지며 전년 대비 2.2% 증가 예상, 단 해외 생산의 확대, 중국의 회복 지연 및 경쟁력 신장은 우리 수출 확대를 제약할 전망

- 2024년 13대 산업의 수출은 철강 등 소재산업, 일반기계 및 이차전지에서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및 바이오헬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2023년 대비 10.3%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기계산업군) 조선산업(4.1%)의 수출 성장은 지속되나 부진한 중국 수요와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자동차(-2.7%) 및 일반기계(0.2%) 수출이 정체되며 기계산업군 전체 수출은 2024년 대비 0.8% 감소 예상

- 2025년 자동차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 수요 정체,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대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여 915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며, 물량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265만 대 규모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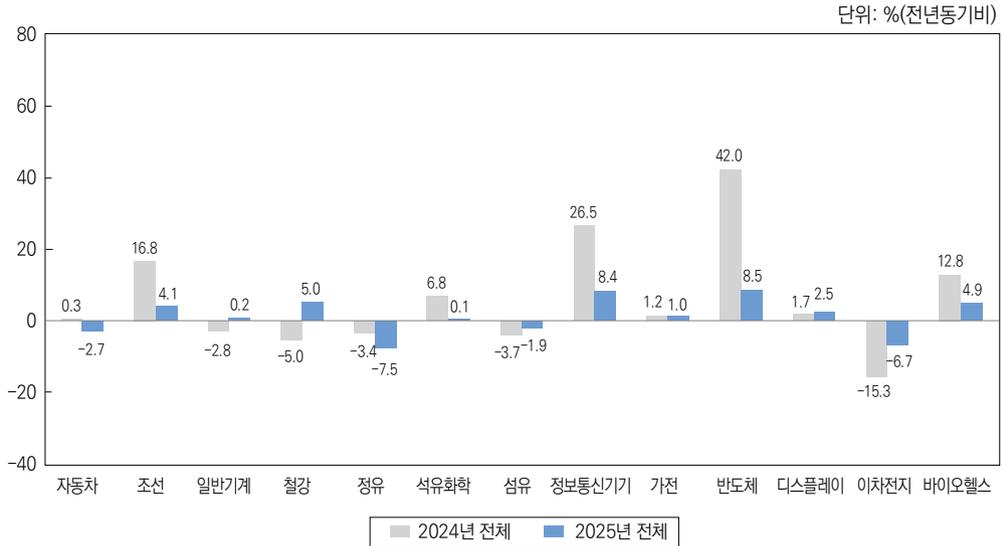
· 2024년은 전기차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등 전동차 수출 증가와 한국 GM의 소형 SUV 대미 공급 물량이 증가하여 규모로는 940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로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을 달성하고 증가율은 0.3%의 소폭 증가를 기록할 전망

- 2025년 조선 수출은 해외 선사의 고가 LNG운반선 대량 인도로 전년에 이어 수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2024년 대비로는 4.1% 증가 예상

· LNG운반선을 비롯하여 수출선 물량이 증가하고 인력 확보와 숙련도 향상으로 생산 현장의 안정화가 기대되며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기자재의 수출도 양호할 전망

- 2025년 일반기계 수출은 미주, 인도, 중동지역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 시장의 부진이 전체 수출 성장을 제약하여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칠 전망

〈그림 2-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2024년은 미주지역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중동지역 플랜트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대유럽 수출이 크게 부진하여 전년 대비 2.8% 감소 추정
- (소재산업군) 철강(5.0%), 석유화학(0.1%)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유(-7.5%) 수출의 큰 폭 감소 영향으로 소재산업군 전체의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며 지난해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
- 철강 수출은 EU 내 내수 둔화 완화 및 신흥국의 견고한 수요 여건을 바탕으로 물량은 소폭(1.9%)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 원자재 가격 상승세 전환 및 중국 철강재 내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 전망
- 2024년은 신흥국향 수출 증가와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물량은 2.5% 증가하나 수출 단가 약세로 금액 기준 수출은 2023년에 이어 감소세 유지 예상
- 정유 수출은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의 악화가 상반기 수출의 큰 폭 부진으로 이어지며 전년 대비 7.5% 감소 전망

- 2024년은 하반기 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 폭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 추정
- 석유화학은 주요 시장 내 공급과잉 부담이 완화되고 주요 수출국 전방산업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수출액은 전년 대비 0.1%, 수출 물량은 0.8% 증가 예상
- 2024년 수출은 수출 단가 하방 압력이 하반기까지 지속되었으나 아세안 및 중국 시장 내 전방산업(ICT) 수요 호조 영향으로 2023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섬유 수출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 여건 악화와 섬유소재 수요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 전망
- (IT 신산업군) 2024년 28%의 큰 폭으로 증가한 IT 신산업군의 수출은 AI 수요 증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IT 기기 수요 확대로 반도체(8.5%), 정보통신기기(8.4%), 바이오헬스(4.9%) 등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2025년에도 6.9%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단 전기차 수요 정체, 중국의 경쟁력 제고는 수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AI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2025년에도 확대되고 스마트폰 및 PC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SSD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할 전망
- 2024년 수출은 SSD 수출의 큰 폭 증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부품 수출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5%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
- 가전 수출은 글로벌 수요 증가세 예상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의 제한적 성장 예상
- 반도체는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IT 기기 수요의 점진적 증가, DDR5·HBM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이에 의한 반도체 단가 상승 효과로 8.5% 증가 전망, 단 2024년의 실적 호조에 따라 증가세는 둔화 전망
- 2024년은 메모리반도체 단가의 상승과 안정화에 따라 연중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 수출액은 약 1,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며, 2023년 대비 42.0%의 대폭 성장이 나타나 우리 경제 수출 증가를 주도
- 디스플레이는 IT용 OLED 침투율 상승, 대형 OLED 패널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패널 기업과의 OLED 경쟁 심화가 예상, 이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 축소에 따라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2.5%의 제한적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성장세 둔화 속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6.7% 감소가 예상되나 감소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헬스 수출은 유럽향 의약품 수출과 중국향 의료기기 수출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향 바이오시밀러 중심 의약품 수출 호조가 나타나며 전년 대비 4.9% 증가 예상

〈표 2-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 증가 · EU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효과 · 해외 생산 증가로 부품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생산 공장 신설 · 해외 생산 공장 차종 변경(세단 → SUV) · 주요 수출시장 수요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생산 물량 증가가 수출 물량 대체하며 감소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수출용 LNG운반선 인도 증가 · 인력 확보 및 숙련도 향상으로 생산현장의 안정화 · 조선기자재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기자재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제한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인력 관리하에서 높은 선가에 수주한 고가의 LNG운반선 대량 인도, 조선기자재 수출로 증가세 지속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미국·멕시코) 및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인도 현지 설비투자 확충으로 공작기계 수출 증가 전망 · 브라질(광산 개발), UAE(인프라 조성 투자)향 건설기계 수출 증가 예상 · 대중동 해의 플랜트, EPC 수주 호조세(2024년 10월 누계 기준 전년동기비 33.4% 증가)로 관련 기자재 수출 증가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모멘텀 약세(제조업 PMI 50 하회)에 따른 투자 수요 둔화 · 유럽 경기 침체 및 중국 제조업 경기 위축 장기화로 대유럽·대중국 수출 부진 지속 ·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공작기계 및 건설기계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일본의 철강 수요 개선 및 인도, 아세안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지속 ·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 ·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설비능력 확대로 대세계 수출 경쟁 심화 ·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미 통상규제 강화로 불확실성 증가, 대세계 중간재용 수출 감소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중국 건설경기 부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및 신흥국으로의 수요 개선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 기조 영향으로 물량 기준 수출 소폭 확대 전망,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으로 금액 기준 수출은 상승폭이 커질 전망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하향 안정화로 수요 확대 · 항공유 및 나프타 중심의 수요 확대 · 비OECD 중심의 수요 증가 · 정제마진 개선 · 중국 내 티팟 및 OECD의 정제설비 폐쇄 및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하락 · OECD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 중국, 인도 및 중동국가의 수출 확대로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 상반기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증가폭 제한) · 국내 증산으로 수출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하락에 연동된 수출 단가 하락 · 해상운임 하락으로 미국발 물량 아시아 시장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수요 점진적 회복 · 공급과잉 부담 · 완만한 수출 증가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안정 및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의류 소비 증가 및 의류용 소재 수요 확대 · 첨단소재 생산 증설에 따른 수출 확대 · 미·중 분쟁으로 인한 첨단소재 반사이익 기대 ·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로 의류 소비 둔화 및 의류용 섬유 수출 둔화 · 중국산 덩핑 증가 · 이-팔 분쟁에 따른 대중등 수출 감소 · 중국 이커머스의 급성장에 따른 세계시장 잠식 · 유가 하락으로 수출 단가 하락 · 해외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안정화 및 내수 진작 정책 불구, 주요 수출국인 미·중의 경기 성장세 둔화, 수출 단가 하락,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서버 및 PC 수요 증가로 SSD 시장 성장 · PC 교체 수요(2025. 10 윈도10 서비스 종료) · 소비심리 개선 및 스마트폰 신제품(온디바이스 AI, 슬림폰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D 경쟁 심화로 한국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 존재 · 글로벌 수요기업의 부품(카메라모듈 등) 공급망 다변화 및 기업 간 경쟁 심화 · 해외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요인(보호무역 강화 등)이 상존하나, AI 활용 확산으로 세계 정보통신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 수출 증가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가전 및 스마트홈 시장의 고성장 ·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프리미엄 생활가전 중심의 제품 단가 상승 ·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가전 소비심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생산 증가 · 미국의 보호무역 우려 · 중국과 경쟁 심화 · 2025년 상반기까지 고가의 물류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생산 증가가 부정적 요인이나, AI가전 수요 확대 및 제품 단가 상승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기기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 · AI 서버 확산 · DDR5 보급이 확대되고, 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 · 일부 품목의 생산 공정 중 해외에서 후공정 처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장에서 애국 소비 확산으로 한국산 레거시 반도체 수요 일부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장에서 IT 기기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수출도 증가 ·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로 국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용 기기 OLED 침투율 상승 · OLED TV 시장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IT 제품 애국 소비 지속 · 중국 기업 OLED 역량 확대 · 폴더블 시장 둔화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용 기기를 비롯한 대형 OLED 시장 규모 확대로 성장
이차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CO₂ 규제 강화에 따른 유럽 내 전기차 수요 증가 · 수출 단가가 상승세로 반전 가능성 ·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ESS 수출 확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의 미국 신규 공장 생산 물량 확대 ·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미국 내 이차전지 수요 둔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공장에서 생산 물량 증가로 수출 물량을 대체하면서 감소세 유지하나 유럽 수요 개선, 수출 단가 반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25년 감소율이 소폭 하락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MO 해외 수주 증가 · 바이오시밀러 후호정책 확대 · 전쟁·전염병 등 해외 의약품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 · 약가 인하 정책 본격화 · 달러·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시밀러·CDMO 중심으로 소폭 증가

□ 내수: 소비심리 개선 및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국내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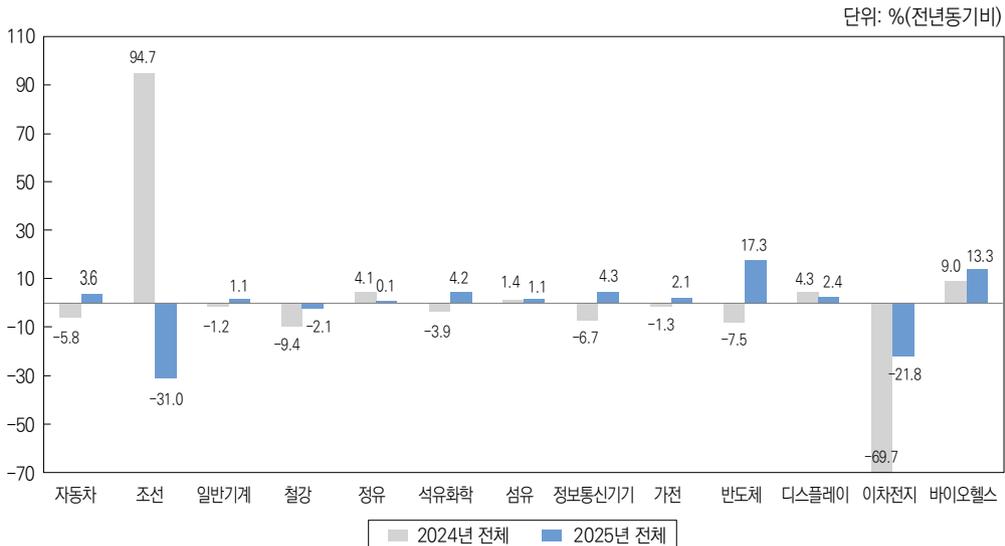
○ (기계산업군) 제조업 전반의 투자 확대와 내수 시장 위주의 판매전략 강화에 따라 일반 기계(1.1%), 자동차(3.6%) 등 주요 산업의 2025년 내수는 증가세로 전환 예상

- 자동차 내수는 전년 내수 판매 부진에 의한 기저효과와 다양한 차종의 신규 모델 투입 및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시장 판매전략 강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0만 대를 기록할 전망

· 2024년은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과 차량 구매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성 이슈로 인한 차량 구매 지연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며 2023년 대비 5.8% 감소 추정

- 조선 내수는 LNG운반선의 증가에도 컨테이너선, LPG운반선 인수 물량의 감소와 2024년 고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1.0% 감소 전망

〈그림 2-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1)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2) 조선산업의 내수는 국적 선사가 국내 또는 해외 조선사에 발주하여 인수받는 물량(CGT)으로 국내 해운사의 선박 발주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 2024년은 국적 해운사가 대량 발주하여 우리나라 조선사가 건조한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중국 조선사가 건조한 PCC와 벌크선 등의 인수가 크게 증가
- 일반기계 내수는 수요산업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와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계 및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전년 감소(-1.2%)에서 1.1% 소폭 증가 전망
- 2024년은 내수 경기가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23년(-14.9%) 대비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된 -1.2% 증가율 기록 예상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석유화학(4.2%)의 내수 반등 및 정유(+0.1%)의 내수 규모 유지가 예상되나 철강은 건설 수요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할 전망
- 철강 내수는 건설 수요 회복 지연과 조선 및 자동차용 판재류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2.1% 감소한 4,650만 톤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4년은 조선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 위축에 따라 건설용 봉형강류 및 판재류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연간 내수가 2023년 대비 9.4% 감소
- 정유 내수는 운송용 및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나 경유 및 산업용 수요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024년 수준을 유지(+0.1%)할 전망
- 석유화학 내수는 전방산업(ICT와 조선) 업황 개선으로 2024년 대비 4.2% 증가하며 평년 수준(1,000만 톤 규모) 회복 예상
- 2024년에는 국내 주요 전방산업 경기 부진으로 석유화학 내수가 980만 톤 규모까지 축소되었으나, 상저하고 형태로 점진적 개선
- 섬유산업 내수는 민간소비 여건 개선, 첨단소재 등 섬유 수요 고도화 등의 긍정적 영향과 중저가 의류 중심의 섬유소재 수입 확대에 따라 소폭의 증가세(+1.1%)가 유지될 전망
- (IT 신산업군) IT 수출 호조 및 국내 교체 수요 발생으로 정보통신기기(4.3%), 반도체(17.3%) 등 주요 IT산업의 내수는 증가 전환 예상, 신약 효과로 인한 바이오헬스(13.3%)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전지(-21.8%)는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위축세로 내수 감소가 지속될 전망

〈표 2-8〉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 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 플라인업 구축에 따른 다양한 수요 대응 가능 · 수출 부진으로 내수 시장 공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가격 상승 · 경기 침체에 따른 낮은 구매 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 공략 강화와 다양한 차급의 BEV 및 HEV 출시로 증가 예상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운반선, 벌크선 등 인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선, LPG운반선 인수 물량 감소 · 인력 또는 숙련 부족으로 생산능력 확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운반선이 증가하지만, 2024년 많이 인도된 컨테이너선과 LPG운반선 등의 감소로 전체 물량은 감소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효산업 경기 호전에 따른 설비투자 회복 및 자동차·친환경화 관련 기계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 제조업 경기 회복세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효산업의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 전망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영향으로 설비투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부동산 경기 위축, SOC 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 지속 · 조선 수주잔량 감소에 따른 후판 수요 감소 · 자동차 수출 여건 부진으로 생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에 따른 소폭의 설비투자 회복이 기대되나 주요 수효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등의 경기 부진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 전망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 운송용 수요 확대 ·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규제 강화로 경유 수요 감소 · 유류세 환원 및 전기차 보급 확대 · 정제마진 변동성 대응을 위한 낮은 재고 수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항공유 및 나프타 수요 확대 예도 불구하고 경유 및 산업용 수요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확대에 그침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반도체, 무선통신), 조선 중심 전방산업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전방산업 업황(건설, 섬유, 이차전지 등)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회복(2023년 수준, 평년 수준 대비 소폭 하회)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및 물가 하락으로 소비 개선 · 내수 진작을 통한 소비 개선 ·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 C-커머스 국내 진출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체중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 국내 섬유 생산활동 부진에 따른 섬유소재 내수 부진 ·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건축자재용 섬유 수요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여건 개선 및 중저가 시장 확대,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섬유 내수 소폭 증가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산 신규 스마트폰(시폰, 슬림형폰 등) 출시 · 윈도10 지원 종료(2025. 10)와 AI PC 신제품 교체 수요 증가 · 기업들의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대출 부담과 제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신제품 및 PC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2025년 내수가 회복될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및 금리·환율 안정화에 따른 가전 소비심리 개선 · 2023~2024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가전 구독 서비스 확대 · 가성비비가 우수한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가 존재하나 물가 안정화와 기저효과,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로 내수는 증가로 전환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 평가
반도체	· AI 등 신기술 개발 · 자율주행 자동차, 전지자동차 등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 IT 기기 신제품 출시 지연	· 연구개발용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가 내수를 견인
디스플레이	· 차량용 디스플레이 대면적화 지속 · 투 스택 적용 확대로 소재 수요 상승	· 고부가 스마트폰 소재부품 수요 감소	· 대면적화로 인한 소재부품 수요 상승으로 소폭 증가
이차전지	· 신규 공장 가동 본격화로 국내 이차전지 생산능력 제고	· 전기차 국내 생산 및 판매 증가세 둔화에 따른 국내 이차전지 수요 감소	· 국내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위축으로 이차전지 내수 하락세 지속될 전망이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바이오 헬스	· 비만치료제 처방 본격화 · 국내 신약 처방 확대	· 상급 종합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 감소 · 수입 의약품 조달 어려움	· 종합병원급 전문의 처방 감소는 내수 위축 요인이거나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

- 정보통신기산업의 2025년 내수는 국산 및 외산 신규 AI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작용하고 PC 교체주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3%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4년은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급률 포화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2023년 대비 약 6.7%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가전 내수는 2023~2024년 내수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물가 안정화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가전 구독 서비스 확산 및 중국 등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 증가 전망
- 반도체 내수는 PC 부품 수출 호조, 세계 IT 기기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더불어 AI·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 연구를 위한 반도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
 - 2023년 후반부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감산 추진에 따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재고를 포함한 반도체산업의 내수 수치는 2023~2024년 2년 연속 감소를 기록
- 디스플레이 내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대면적화 영향으로 패널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2.4% 증가 예상
- 이차전지는 국내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위축에 따라 2025년에도 내수가 2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둔화될 전망

- 2024년은 소비심리 위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이차전지 내수가 큰 폭(69.7%)으로 감소
- 바이오헬스는 2025년에도 비소폐암치료제 ·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 국내 개발 신약의 처방이 증가하고 비만치료제 수요도 증가하여 내수는 전년 대비 13.3%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전망, 단, 의료공백 장기화는 내수 확대의 제약 요인
- 2024년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내수가 9% 확대

□ 생산: 수출의존도 높은 IT 신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 지속 예상, 자동차 등 여타 산업에서는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전년의 위축 추세가 이어질 전망

○ (기계산업군) 해외 생산 확대로 자동차(-1.5%)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하고 기저효과 영향으로 조선(-1.5%)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내수 개선으로 기계(0.2%)는 증가로 전환 예상

- 2025년 자동차 생산은 해외 시장 BEV 수요 관련 수출의 일부를 해외 전기차 전용 생산 설비에서의 생산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 감소한 406만 대를 기록할 전망

· 2023년에는 수출 호실적으로 8년 만에 420만 대 생산을 상회했으나 2024년부터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생산이 감소 추세로 전환

- 조선은 LNG운반선의 인도가 증가하고 인력 확보 및 숙련도 향상에 따른 생산 현장 안정화로 기존 인도 조정된 물량까지 생산 가능할 전망이나, 전년 대비 컨테이너선 인도 비중 축소와 기저효과에 따라 2025년 생산은 전년 대비 1.5%의 소폭 감소 전망

-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증가세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0.2% 증가하며 증가로 전환 예상

· 2024년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내수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2023년 (-7.8%) 대비 감소폭이 크게 완화된 -1.8% 증가율 기록 예상

○ (소재산업군)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철강(-0.6%), 섬유(-1.0%)의 부진세 지속 전망, 석유화학(0.8%)은 판매 단가 개선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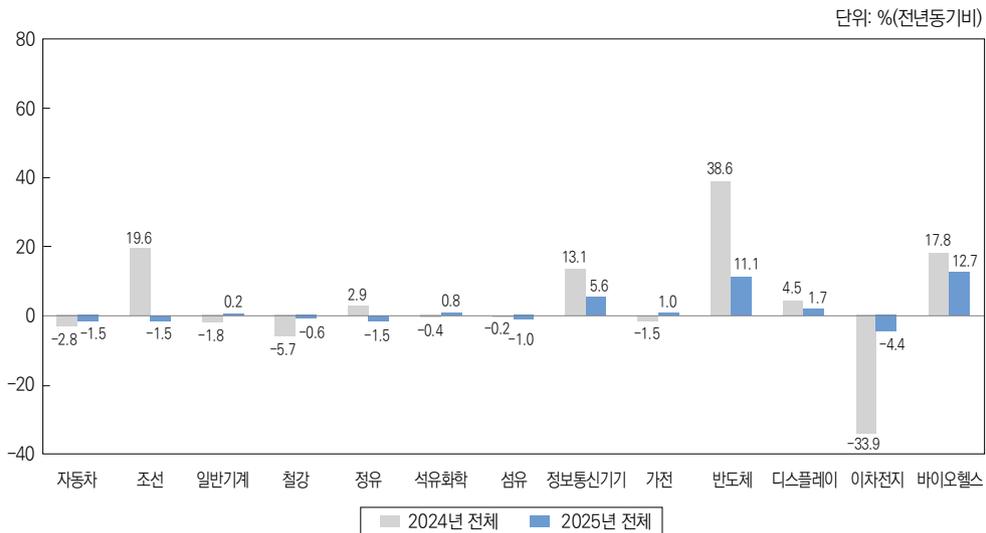
- 철강 생산은 수출의 소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요산업의 내수 위축과 수익성 개선

- 을 위한 비주력 제품에 대한 감산기조의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0.6% 감소 예상
- 2024년 생산은 포스코 포항 4고로 3차 개수로 인한 가동 중단과 건설 경기 부진 영향 봉형강류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5.7%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정유는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로 인한 수요 확대와 글로벌 공급 완화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정제설비의 가동률 회복이 예상되나 2025년 연간 생산은 전년대비 1.5% 감소 예상
- 2024년 하반기 정제마진 악화로 인한 정유사의 가동률 하향 조정이 2025년 상반기 생산 및 수출 감소에 영향
- 석유화학 2025년 생산은 공급과잉 완화에 따른 제품 가격의 소폭 상승과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로 인한 주요 제품 스프레드의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0.8%) 증가할 전망
- 2024년은 제품 스프레드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내 중국발 공급 증가가 국내 생산 증가폭을 제한하며 2023년 대비 횡보세(-0.4%) 기록 예상
- 섬유 2025년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설비 증설 및 생산 돌입과 내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범용 부문의 국내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생산 물량 조절, 해외 생산 및 수입 확대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0% 감소할 전망
- (IT 신산업군) 수출 호조세 지속 및 내수 개선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5.6%), 반도체(11.1%), 바이오헬스(12.7%) 생산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차전지는(-4.4%) 수출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예상
- 정보통신기기의 2025년 국내 생산은 내수가 증가로 전환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6% 증가할 전망
- 반면 스마트폰 완제품과 카메라모듈 등 주요 부품의 해외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추세는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가전 생산은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 확대 및 2023~2024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전망
- 반도체의 2025년 생산은 IT 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 생산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1.1% 성장할 전망이며 2024년(38.6%) 큰 폭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 생산은 IT용 패널을 비롯한 수요처 다변화와 LCD 조달의 불안정성에 따른 OLED 수요가 확대되면서 2025년에도 1.7%의 소폭 증가 예상
- 이차전지 생산은 2025년도로 예정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2공장, SK온 서산 3공장(2025년에는 일부만 생산) 가동이 시작되어 증가 요인이 존재하나 전기차 수요 위축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다만 감소율은 2024년 -33.9%에서 크게 줄어든 -4.4%를 기록할 전망
- 바이오헬스 생산은 글로벌 빅파마로부터의 위탁생산 계약수주 증가와 주력 수출 품목 중심 호조세 유지로 12.7%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2024년은 글로벌 CDMO 생태계가 재편되면서 대용량 항체의약품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CDMO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선수주 증가에 따라 생산 호조세(17.8% 증가) 시현

〈그림 2-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9〉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전용 공장 증축 중견업체 전기차 신규 모델 생산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 신규 가동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수출 감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공장을 통한 전기차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출을 대체하여 생산이 감소할 전망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NG운반선 인도 증가 인력 확보 및 숙련도 향상으로 생산 현장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테이너선 인도 감소 조선기자재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제한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기가 긴 LNG운반선을 대량 생산하면서 물량은 유지되는 수준 인도 조정된 물량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생산도 가능할 전망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산업 회복 국면 진입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정체 기계류 투자심리 위축 요인 상존(저성장, 지정학적 불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보합세 및 내수 개선으로 소폭 증가 전환 전망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항국 및 EU항 수출 확대 전년도 개보수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생산 감소에 따른 기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자동차, 조선 등 내수 위축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가동률 하향 조정 세계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수입재 유입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폭의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동차, 조선 등 내수 부진 영향으로 생산은 올해 수준을 하회할 전망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수요 확대 글로벌 공급 완화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 비OECD 국가 중심의 건조한 석유제품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하반기의 정제마진 악화 및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하향 조정 글로벌 수출 경쟁 심화 정제마진 변동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생산량 확대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스프레드 확대(국제유가 하락) 신·증설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생산시설 폐쇄(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만한 내수 및 수출 증가로 소폭 증가(횡보)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냉감 기능성 소재, 스판덱스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 수입 단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 제품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 조정 및 생산 물량 감소 수요 위축에 따른 재고 증가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범용원사 구조조정 이후 직물, 염색가공 등 전방산업의 연쇄적 생산 및 수출 부진 해외 중저가 섬유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리사이클 소재 및 원료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기반 약화, 해외 생산 확대 및 수입 증대로 국내 생산 감소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증가 및 내수 회복 산업 디지털 전환(AI 내재화) 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완제품 해외 생산 확대 주요 부품의 해외 현지 조달 및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 증가로 국내 생산 확대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 2023~2024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국내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생산 확대 광주 지역의 업황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생산 확대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 및 기저효과 영향으로 생산은 전년비 증가로 전환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기기 수요 증가 미세화, 적층화 등 첨단 제조 공정 발달 DDR5, HBM 등 고부가 제품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고, AI 서버 수요 확대 등으로 이에 사용되는 고부가 제품 생산도 증가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용 패널 생산 확대 지속 · LCD 조달 안정성 하락으로 OLED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 패널 수요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용 패널 등 수요처 다변화로 소폭 증가 전망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신규 공장(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2공장, SK온 서산 3공장)의 가동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기차 수요 둔화로 국내 전기차 제조 시 투입되는 이차전지 생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등 수요 부문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능력 확대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5년 생산은 전년 대비 감소를 하락 전망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제약사 위탁생산 계약수주 증가 · 국내외 생산설비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수출 품목 중심으로 생산 증가

□ 수입: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IT 신산업군의 수입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및 범용소재 부문 수입의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3.6%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전기차 관련 수입 확대로 자동차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반기계는 제조업 경기 회복 흐름 영향, 조선은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수입과 LNG운반선 건조 확대 영향으로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

- 2025년 자동차 수입은 테슬라·BYD 등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형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고 전기차 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7% 증가한 214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2024년 수입은 내수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국내 고급차 브랜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동차 할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량 구매비용의 상승으로 2023년 대비 8.5% 감소 추정

- 조선 수입은 중국으로부터의 벌크선과 베트남으로부터 화학제품선 수입이 증가하고, 선박·해양플랜트 블록의 해외 반입 증가와 LNG운반선 생산 증가에 따른 기자재 수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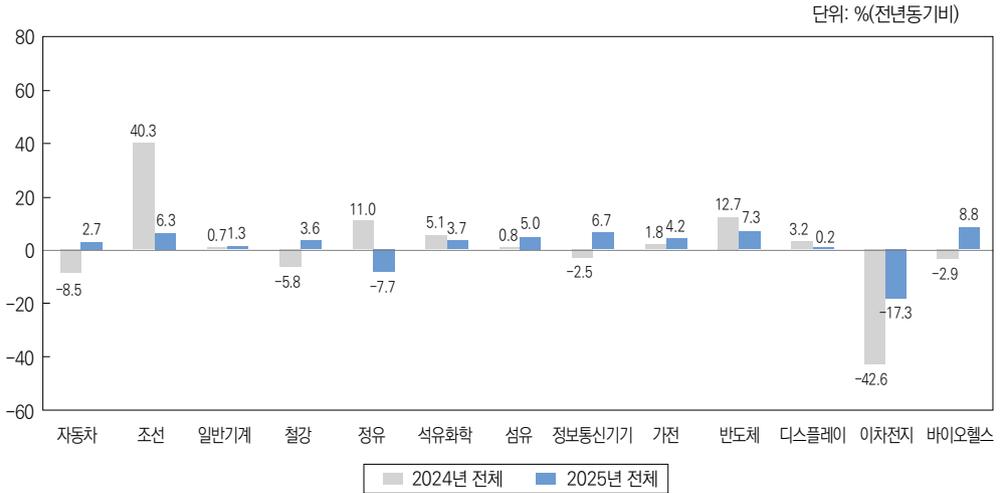
· 2024년은 중국으로부터 편의치적선이 대량 유입되고 중고선 수입도 늘어나면서 2023년 대비 40.3%의 높은 수입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일반기계 수입은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소재산업군) 중국산 범용제품의 국내 유입 지속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수입의 증가 요

- 인이나 내수 성장 정체가 수입 증가를 제약할 전망, 정유는 단가 하락으로 감소 전환 예상
- 철강 수입 물량은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할 전망이나 수입 단가의 인상에 따라 수입액은 3.6% 증가 예상
 -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보통강·특수강 후판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정 될 경우, 추가적인 수입 물량 감소 가능성 존재
 - 정유 수입은 전방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량 확대에 따라 물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가 예상되나 국제유가 하락 및 나프타 가격 강세 완화에 따라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액으로는 전년 대비 7.7% 감소 전망
 - 석유화학 수입은 중국산 범용제품의 국내 유입 규모 확대와 더불어 ICT 중심 내수 증가로 전년 대비 3.7% 증가 전망
 - 2024년은 수입 단가 하락과 미국산 제품의 아시아 시장 유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범용제품 수입 규모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5.1% 증가 예상
 - 섬유 수입은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한 수입 확산, 국내 생산이 감소한 PF 일반사 감소 물량의 수입 대체 및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5.0% 증가할 전망이나 해외 직물 바이어의 원산지 증명 요구 등 비관세 장벽 강화는 수입 억제 요인
- (IT 신산업군) 내수 회복, 신제품 출시 및 역수입 확산에 따라 주요 IT산업의 수입 증가 추세 지속과 바이오헬스산업 수입의 증가 전환 예상, 이차전지는 부진한 내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경기 회복과 함께 외산 스마트폰 및 PC 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 생산 국내 제품의 역수입도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약 6.7% 증가할 전망
 - 가전 수입은 내수 회복과 환율 하락으로 국내 수요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역수입과 해외 브랜드 제품 선호 확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신기술 연구개발용 시스템반도체의 수입이 지속되고 중국 소재 한국 기업에서 생산한 웨이퍼의 국내 후공정 처리 목적 수입이 확대되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

〈그림 2-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0〉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가 전기차 수입 증가 위탁생산 및 제휴 모델 생산에 따른 부품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완성차 고급 브랜드 라인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입차 신규 투입으로 증가 예상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LNG 운반선 생산 증가 해외로부터 선박 및 해양 플랜트 블록의 반입 증가 국내 해운사가 해외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 및 중고선의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자재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박 도입 확대, 기자재 수입 증가 예상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및 IT 경기 회복세로 관련 투자 수요 확대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을 위한 첨단 제조 장비, 친환경 산업장비 및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전반의 내수 경기 회복 흐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세로 소폭 증가세 지속 예상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내 건설, 기계 등 수요 부진에 따른 중국 기업의 저가 철강재 수출 확대 전략 지속 트럼프 당선에 따른 주요 철강 생산국들의 대미 수출 부진으로 수출 가격 하방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의 내수 부진으로 국내 수요 감소 열연 및 STS후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시 중국산 후판 수입 감소 가능성 세계 철강 가격 상승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확대에 저가 철강재의 국내 수입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내수 부진으로 소폭의 감소세 전망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유가 하락 및 나프타 가격 강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물량은 소폭 확대되겠지만 수입 단가 하락으로 감소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반도체, 무선통신, 자동차) 중심 전방산업 수요 증가 · 운송비용 부담 저감으로 미국, 중동 산 수입 증가 · 중국산 범용제품 국내 유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단가 하락 · 일부 내수(건설, 이차전지 등)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 규모 확대 지속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및 물가 안정화, 내수 진작 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수입 수요 확대 · 범용 PF사 생산 중단으로 원사 및 생지 수입 증가 · 국내 제조업 생산 확대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확대 ·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 · C-커머스의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여력 축소 · 해외 직물 수입 업체의 원산지 증명 요구 강화에 따른 수입 원사 수요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가 수입 의류 소비 확대 및 국내 생산 중단에 따른 범용사·직물 수입 수요 확대로 증가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산 신제품 출시 확대 및 수요 증가 ·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부담, 제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신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5년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회복 및 환율 하락 ·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역수입 증가 ·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수요 증가 · 중국 브랜드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전 구독 서비스, 스마트홈 플랫폼 보급 확대로 내수에서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회복,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역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의 경쟁우위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연구개발 증가 ·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 중국 공장에서 제조 공정 단계의 웨이퍼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자기기 생산 축소 · 국내 소비심리 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내수가 증가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웨이퍼 조달도 증가해 수입이 증가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LCD 국내 생산 대체 · 주요 수요품 면적 확대로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면적 기준 LCD 가격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가격 하락에도 주요 제품 패널 면적 확대로 규모 유지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단가 완화 가능성 ·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용 및 수출용 전기차 국내 생산 감소로 국내 전기차 제조 시 투입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 거점으로 부터의 이차전지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기차 생산 둔화로 하락이 예상되나 워낙 감소율이 높았던 2024년에 비해 낙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치료제 처방 본격화 · 고령인구 만성질환 증가 · 혁신신약 출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공백 장기화로 검진 및 처방 감소 ·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 조달 경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비만 치료제 중심 수입 증가세로 전환

- 디스플레이 수입은 국내 LCD 조달이 어려워진 수요처의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패널 대면적화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0.2% 증가 전망
- 이차전지의 2025년 수입은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중국 생산 거점으로부터의 이차전지 수입 감소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17.3% 감소할 전망이나 광물 가격 하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수입 단가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헬스 수입은 당뇨·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입이 큰 폭 증가하며 전년 대비 8.8% 증가할 전망이며 원료의약품 및 필수약품 조달 리스크의 확대도 예상

3. 종합 및 시사점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5년에도 정보통신기기·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은 수출, 내수, 생산 지표에서의 견고한 성장 예상, 조선·가전·디스플레이산업은 성장세 정체 내지 둔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기계·석유화학·정유는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되나 자동차, 철강, 섬유, 이차전지는 다소의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
- <자동차> 수출 감소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침체 국면 예상
 - 그동안 BEV, HEV 수출 증가가 자동차산업 성장을 견인했으나 2025년 BEV의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수출을 대체하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2-1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이에 더해 트럼프 재집권으로 보편관세 부과 시 수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 있어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출 감소 물량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

○ <조선> 성장세는 둔화되고 수주는 소폭 감소 예상

- 2025년 조선산업은 생산(건조)량은 생산능력 제한으로 유지되고 높은 수준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과 수출이 지속될 예정이나, 해운 시황 악화로 수주는 소폭 감소할 전망

○ <일반기계> 내수 회복세가 기대되나, 수출이 정체되면서 제한적 성장세 전망

- 2025년 일반기계산업은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로 증가세가 정체되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보합세 전망

○ <철강> 2024년 침체 국면 진입, 2025년에도 성장의 정체는 지속

- 2025년 철강산업은 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 경기 부진으로 내수 위축이 지속되나, 신흥국 및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한 생산 유지 노력으로 올해 수준의 성장세 유지 전망
· 2024년은 건설 경기 침체 및 투자 부진 영향으로 생산 및 내수의 큰 폭 하락 시현

○ <정유> 상반기 위축세 지속되나 정제마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 회복 국면 진입 예상

- 2024년 하반기의 정제마진 악화로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하향 조정이 2025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나, 2025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의 견고한 증가와 공급 완화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으로 국내 생산량 및 수출이 확대할 전망

○ <석유화학>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전망

- 2025년은 2024년까지 지속된 국내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으로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 규모도 평년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단,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구조 개편과 해상 운임 하향 안정화에 따른 미국 및 중동산 제품의 유입은 2025년 업황 개선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섬유> 업황 부진 지속 전망

- 2025년 섬유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베트남 등 생산기지의 섬유소재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지속 감소하고, 수입 중심의 내수 성장만 나타나는 등 산업의 부진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 2024년 회복 국면에 진입, 2025년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2025년 정보통신기기산업은 신제품 수요의 발생 및 글로벌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SSD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도 회복되며 성장할 전망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변수이지만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 추진, 특히 생성형 AI 활용 확산이 국내외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성장을 이끌 전망

○ <가전> 글로벌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확대로 수출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 2025년 가전산업은 글로벌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해외 생산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위축으로 수출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

○ <반도체> 전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2024년 국내 반도체산업의 업황은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 2025년에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주요 수요시장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한국 반도체산업 또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디스플레이> 담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2025년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 수요시장 성장에도 중국의 경쟁력 상승에 따라 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전망

- 2024년의 경우 태블릿 OLED 수요 확대가 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이어져 2023년의 침체에서 벗어났으나 가장 주요한 수요 제품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축소

○ <이차전지> 2024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 업황은 어려운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이차전지 총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이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 위축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다만 2024년 큰 폭의 실적 부진에 따라 2025년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폭 자체는 전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

○ <바이오헬스> 성장세 유지 전망

-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은 대미 의약품 수출 여건 개선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신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2024년의 경우 코로나 수혜 효과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임플란트, 필러, 진단용 의료기기 등 수출 주력 의료기기 수요 유지, 추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보툴리눔 독신 등 의약품 중심 수출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 실적 호조세 기록

□ 시사점

- 2025년에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교역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대응, 선도 부문에서의 초격차 확보, 전통 부문에서의 수요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응,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이에 위축이 예상되는 산업의 내수 진작, 수입 범람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불확실한 교역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요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의 마련,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지원 등이 주요한 정책 과제일 것

<표 2-12>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

	정책 과제	대응 방안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수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미래차 관련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외에 전기차 수요 중심의 다양한 구매 지원 방안 발굴 ·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 기술 등 일몰 기한 연장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내국인 및 외국인 인력 육성 · 전후방산업 및 연관산업 협력 기반 마련 · 한·미 조선 협력 및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견제 모니터링과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유지를 위한 건전한 인력 육성 방안 마련 ·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현장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조선소의 디지털 전환)과 적용 · 조선-해운-철강-화주-금융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발주 기반 친환경 스마트선박 시장 대응 · 조선산업 한·미 협력 방안 마련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에 따른 기계산업 대미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내수) 기계산업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모니터링 및 친환경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 · 중소기업 대상 노후 공작기계 교체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계속)

	정책 과제	대응 방안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철강산업 수익성 개선 및 제품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 정부 주도의 통상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 저탄소 유망 제품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설비교체 지원 ·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철강 모니터링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무역구제조치 등의 정책 시행 전 연관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안 도출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망, 친환경 에너지 계통망, 탄소포집 후 저장 시설 구축 지원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 기반 강화 · 내수 활성화 및 보호 전략 마련 · 강화되는 기후·환경 규제 및 디지털 전환 트렌드 대응 · 해외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소재산업 기반 유지 전략 추진 · 중국 초저가 직구 업체의 세계 시장 및 국내 진출에 대한 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 · 친환경 제품(바이오 유래, 생분해, 리사이클 등)의 시장 진입 및 연착륙 지원 · 중국에서 동남아 등지로 확대되는 K-패션의 수출 확대 지원 강화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역내 석유제품 수출 경쟁 심화 및 정제 마진 약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석유제품 공급 확대에 대비한 수출 강화 전략 마련 · 친환경 석유제품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 산유국과의 양자 FTA 추진을 통한 원유 수입 관세 철폐 확대 · 석유정제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 및 감면 등의 세제 지원 · SAF 등의 생산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강화 및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 ·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바이오 원유의 생산과 활용을 위해 감축 효과 인증 등에 관한 제도 개선과 수입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 단말기 및 요금제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 내수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 ·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핵심 부품(플렉시블폰용 부품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의 AI·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요금제 관련 법·제도(단통법, 자급제·알뜰폰·중고폰 활성화 등) 정립과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 · 신제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R&D 및 실증·인증 지원,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마케팅 등) 강화 · 기업의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확충하고 컨설팅, 인프라, 세제·자금 등 지원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스마트 제품과 친환경 서비스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돕는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 · 가전산업 데이터 활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산성 극대화화 서비스 부가가치 향상 전략 추진 · AI 가전 및 스마트홈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R&D 투자로 가전산업 AI 개발 생태계 구축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 변동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시장 변화를 추적 · 미국 반도체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세대 적기 투자를 위한 유인 방안 확보 필요 · 일본 주요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투자세액공제(2023년 종료 예정), 국가전략 기술(2024년 종료 예정) 등 일몰 기한 연장 · 소부장 기업 R&D센터 유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신정부 출범 후 IRA 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비 · 한국 이차전지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외에 전기차 수요 중심의 다양한 구매 지원 방안 발굴 · 투자세액공제 개선(제3차 양도 허용 등), 차세대 기술 R&D 지원 강화, ESS·드론 등 신수요 분야 활성화 지원, 친환경 설비 지원 등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기술 공정 개선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관 협력 촉진

〈표 2-1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93,818 (21.2)	48,319 (2.2)	45,755 (-1.7)	94,074 (0.3)	46,970 (-2.8)	44,608 (-2.5)	91,578 (-2.7)
조선	21,792 (19.9)	11,724 (27.7)	13,723 (8.8)	25,447 (16.8)	13,090 (11.7)	13,400 (-2.4)	26,490 (4.1)
일반기계	53,432 (4.6)	26,143 (-1.9)	25,803 (-3.7)	51,946 (-2.8)	25,840 (-1.2)	26,190 (1.5)	52,031 (0.2)
철강	35,192 (-8.5)	16,620 (-10.2)	16,802 (0.7)	33,423 (-5.0)	17,452 (5.0)	17,655 (5.1)	35,107 (5.0)
정유	51,999 (-17.3)	26,442 (7.6)	23,787 (-13.3)	50,229 (-3.4)	21,938 (-17.0)	24,526 (3.1)	46,464 (-7.5)
석유화학	45,703 (-15.9)	24,420 (5.2)	24,375 (8.4)	48,795 (6.8)	24,510 (0.4)	24,356 (-0.1)	48,866 (0.1)
섬유	10,915 (-11.3)	5,332 (-5.0)	5,181 (-2.3)	10,513 (-3.7)	5,175 (-2.9)	5,140 (-0.8)	10,315 (-1.9)
정보통신기기	24,323 (-30.2)	12,758 (12.0)	18,006 (39.2)	30,764 (26.5)	15,023 (17.8)	18,325 (1.8)	33,348 (8.4)
가전	7,944 (-1.0)	4,143 (3.5)	3,897 (-1.1)	8,040 (1.2)	4,081 (-1.5)	4,041 (3.7)	8,122 (1.0)
반도체	98,634 (-23.7)	65,745 (52.2)	74,285 (34.0)	140,030 (42.0)	70,576 (7.3)	81,344 (9.5)	151,920 (8.5)
디스플레이	18,587 (-12.1)	8,891 (16.2)	10,003 (-8.5)	18,894 (1.7)	9,051 (1.8)	10,313 (3.1)	19,364 (2.5)
이차전지	9,831 (-1.5)	3,968 (-21.2)	4,361 (-9.1)	8,329 (-15.3)	3,758 (-5.3)	4,017 (-7.9)	7,774 (-6.7)
바이오헬스	13,661 (-26.9)	7,614 (9.3)	7,792 (16.4)	15,406 (12.8)	7,850 (3.1)	8,310 (6.6)	16,160 (4.9)
13대 합계	485,831 (-9.5) 〈76.8〉	262,119 (12.4) 〈78.1〉	273,770 (8.4) 〈78.2〉	535,890 (10.3) 〈78.2〉	265,314 (1.2) 〈78.6〉	282,225 (3.1) 〈77.8〉	547,539 (2.2) 〈78.2〉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766 (20.3)	1,467 (3.2)	1,308 (-2.7)	2,775 (0.3)	1,380 (-5.9)	1,270 (-2.9)	2,650 (-4.5)
조선 (만 CGT)	766 (17.8)	403 (2.3)	404 (8.6)	807 (5.4)	465 (15.4)	424 (5.0)	889 (10.2)
일반기계 (십억 원)	69,525 (19.1)	35,298 (7.5)	34,927 (-4.8)	70,226 (1.0)	34,670 (-1.8)	34,178 (-2.1)	68,848 (-2.0)
철강 (천 톤)	27,341 (6.5)	13,581 (0.5)	14,444 (4.5)	28,025 (2.5)	13,962 (2.8)	14,595 (1.0)	28,557 (1.9)
정유 (십만 배럴)	4,944 (-0.5)	2,577 (6.4)	2,517 (-0.2)	5,094 (3.0)	2,393 (-7.1)	2,565 (1.9)	4,958 (-2.7)
석유화학 (천 톤)	36,770 (-0.3)	19,452 (8.1)	19,933 (6.1)	39,385 (7.1)	19,850 (2.0)	19,846 (-0.4)	39,696 (0.8)
섬유 (십억 원)	14,330 (-12.7)	7,199 (-1.0)	7,013 (-0.7)	14,212 (-0.8)	6,943 (-3.6)	6,708 (-4.4)	13,651 (-3.9)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1,941 (-34.1)	17,225 (16.8)	24,364 (41.7)	41,589 (30.2)	20,156 (17.0)	23,973 (-1.6)	44,129 (6.1)
가전 (십억 원)	10,375 (-2.9)	5,594 (7.9)	5,275 (1.6)	10,869 (4.8)	5,476 (-2.1)	5,273 (0.0)	10,749 (-1.1)
반도체 (십억 원)	128,947 (-25.1)	88,769 (58.6)	100,552 (37.8)	189,321 (46.8)	94,692 (6.7)	106,154 (5.6)	200,846 (6.1)
디스플레이 (십억 원)	24,310 (-10.9)	12,005 (21.1)	13,540 (-5.9)	25,545 (5.1)	12,144 (1.2)	13,459 (-0.6)	25,602 (0.2)
이차전지 (십억 원)	12,837 (-4.3)	5,358 (-17.8)	5,904 (-6.6)	11,261 (-12.3)	5,042 (-5.9)	5,242 (-11.2)	10,284 (-8.7)
바이오헬스 (십억 원)	17,841 (-26.1)	10,293 (13.1)	10,534 (20.5)	20,827 (16.7)	10,388 (0.9)	10,997 (4.4)	21,384 (2.7)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5〉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1,745 (2.9)	804 (-10.3)	840 (-1.0)	1,644 (-5.8)	840 (4.5)	863 (2.8)	1,703 (3.6)
조선 (만 CGT)	169 (20.7)	160 (125.4)	169 (72.4)	329 (94.7)	111 (-30.6)	116 (-31.4)	227 (-31.0)
일반기계 (십억 원)	109,048 (-14.9)	53,576 (-6.2)	54,137 (4.2)	107,713 (-1.2)	54,457 (1.6)	54,479 (0.6)	108,936 (1.1)
철강 (천 톤)	52,435 (2.2)	25,490 (-7.5)	22,004 (-11.5)	47,494 (-9.4)	24,878 (-2.4)	21,618 (-1.8)	46,496 (-2.1)
정유 (십만 배럴)	11,081 (-0.5)	5,762 (5.3)	5,778 (3.0)	11,540 (4.1)	5,768 (0.1)	5,787 (0.2)	11,555 (0.1)
석유화학 (천 톤)	10,225 (-6.7)	4,854 (-7.3)	4,971 (-0.4)	9,825 (-3.9)	5,091 (4.9)	5,148 (3.6)	10,239 (4.2)
섬유 (십억 원)	63,743 (4.2)	33,580 (2.4)	31,062 (0.4)	64,642 (1.4)	34,065 (1.4)	31,299 (0.8)	65,364 (1.1)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1,003 (-1.0)	25,002 (-8.4)	22,568 (-4.8)	47,569 (-6.7)	25,740 (3.0)	23,853 (5.7)	49,593 (4.3)
가전 (십억 원)	31,210 (-4.6)	15,519 (3.0)	15,301 (-5.2)	30,820 (-1.3)	15,423 (-0.6)	16,046 (4.9)	31,469 (2.1)
반도체 (십억 원)	61,701 (-11.3)	26,339 (-15.7)	30,706 (0.9)	57,045 (-7.5)	30,639 (16.3)	36,289 (18.2)	66,928 (17.3)
디스플레이 (십억 원)	25,766 (-15.8)	13,433 (10.7)	13,442 (-1.4)	26,875 (4.3)	13,575 (1.1)	13,939 (3.7)	27,514 (2.4)
이차전지 (십억 원)	9,924 (48.1)	1,569 (-74.7)	1,442 (-61.2)	3,011 (-69.7)	1,199 (-23.6)	1,155 (-19.9)	2,354 (-21.8)
바이오헬스 (십억 원)	52,498 (15.3)	26,514 (4.5)	30,696 (13.1)	57,211 (9.0)	31,823 (20.0)	32,984 (7.5)	64,807 (13.3)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6〉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4,244 (13.0)	2,145 (-2.4)	1,980 (-3.2)	4,126 (-2.8)	2,075 (-3.3)	1,989 (0.4)	4,064 (-1.5)
조선 (만 CGT)	924 (18.2)	550 (19.0)	555 (20.1)	1,105 (19.6)	567 (3.1)	521 (-6.1)	1,088 (-1.5)
일반기계 (십억 원)	138,606 (-7.8)	68,156 (-3.2)	67,888 (-0.4)	136,044 (-1.8)	68,293 (0.2)	67,956 (0.1)	136,248 (0.2)
철강 (천 톤)	69,880 (2.9)	33,875 (-5.4)	31,992 (-6.1)	65,867 (-5.7)	33,595 (-0.8)	31,892 (-0.3)	65,488 (-0.6)
정유 (십만 배럴)	12,305 (-1.1)	6,358 (4.1)	6,298 (1.7)	12,656 (2.9)	6,135 (-3.5)	6,333 (0.6)	12,468 (-1.5)
석유화학 (천 톤)	21,639 (-2.2)	10,888 (2.2)	10,664 (-2.9)	21,552 (-0.4)	10,957 (0.6)	10,758 (0.9)	21,715 (0.8)
섬유 (십억 원)	53,267 (4.9)	28,750 (1.0)	24,390 (-1.7)	53,140 (-0.2)	28,557 (-0.7)	24,050 (-1.4)	52,607 (-1.0)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6,308 (-15.6)	24,591 (3.7)	27,801 (23.1)	52,392 (13.1)	27,143 (10.4)	28,194 (1.4)	55,337 (5.6)
가전 (십억 원)	30,983 (-3.2)	15,458 (3.7)	15,060 (-6.3)	30,518 (-1.5)	15,167 (-1.9)	15,656 (4.0)	30,823 (1.0)
반도체 (십억 원)	109,220 (-22.7)	70,088 (48.0)	81,255 (31.4)	151,343 (38.6)	77,506 (10.6)	90,564 (11.5)	168,070 (11.1)
디스플레이 (십억 원)	45,395 (-14.4)	22,656 (13.8)	24,766 (-2.8)	47,423 (4.5)	22,996 (1.5)	25,212 (1.8)	48,208 (1.7)
이차전지 (십억 원)	11,237 (-5.3)	3,738 (-31.4)	3,687 (-22.4)	7,425 (-33.9)	3,547 (-5.1)	3,554 (-3.6)	7,101 (-4.4)
바이오헬스 (십억 원)	42,445 (7.1)	22,821 (12.1)	27,188 (23.1)	50,009 (17.8)	27,444 (20.3)	28,899 (6.3)	56,343 (12.7)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22,772 (2.9)	10,318 (-18.5)	10,519 (4.0)	20,837 (-8.5)	10,760 (4.3)	10,642 (1.2)	21,402 (2.7)
조선	2,498 (-21.1)	1,667 (39.5)	1,837 (41.0)	3,504 (40.3)	1,811 (8.6)	1,914 (4.2)	3,725 (6.3)
일반기계	30,766 (-2.8)	15,344 (-3.0)	15,645 (4.6)	30,989 (0.7)	15,528 (1.2)	15,864 (1.4)	31,392 (1.3)
철강	22,554 (-9.6)	10,856 (-11.5)	10,381 (0.9)	21,237 (-5.8)	11,656 (7.4)	10,337 (-0.4)	21,993 (3.6)
정유	23,161 (-13.3)	12,774 (14.4)	12,937 (7.8)	25,711 (11.0)	11,684 (-8.5)	12,043 (-6.9)	23,727 (-7.7)
석유화학	12,144 (-15.2)	6,309 (-1.6)	6,452 (12.6)	12,761 (5.1)	6,582 (4.3)	6,648 (3.0)	13,230 (3.7)
섬유	18,876 (-5.2)	8,909 (-0.6)	10,110 (2.0)	19,019 (0.8)	9,280 (4.2)	10,695 (5.8)	19,975 (5.0)
정보통신기기	27,899 (-14.1)	13,062 (-7.7)	14,134 (2.8)	27,196 (-2.5)	13,977 (7.0)	15,030 (6.3)	29,007 (6.7)
가전	8,119 (-5.0)	4,188 (1.5)	4,075 (2.1)	8,263 (1.8)	4,272 (2.0)	4,340 (6.5)	8,612 (4.2)
반도체	62,342 (-16.6)	33,343 (8.4)	36,941 (17.0)	70,284 (12.7)	35,645 (6.9)	39,754 (7.6)	75,399 (7.3)
디스플레이	3,582 (-4.9)	2,060 (24.8)	1,637 (-15.2)	3,697 (3.2)	2,029 (-1.5)	1,675 (2.3)	3,704 (0.2)
이차전지	8,830 (45.0)	2,362 (-51.0)	2,703 (-32.6)	5,064 (-42.6)	2,007 (-15.0)	2,179 (-19.4)	4,186 (-17.3)
바이오헬스	21,359 (-8.2)	10,346 (-4.1)	10,387 (-1.7)	20,733 (-2.9)	11,159 (7.9)	11,397 (9.7)	22,556 (8.8)
13대 합계	264,902 (-9.2) <41.2>	131,538 (-2.4) <42.2>	137,758 (5.8) <42.2>	269,295 (1.7) <42.2>	136,390 (3.7) <43.3>	142,518 (3.5) <42.3>	278,908 (3.6) <42.8>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8〉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88 (-4.6)	130 (-3.0)	149 (-2.6)	280 (-2.8)	145 (11.2)	144 (-3.5)	289 (3.4)
조선 (만 CGT)	11 (37.5)	13 (333.3)	18 (125.0)	31 (181.8)	9 (-30.8)	19 (5.6)	28 (-9.7)
일반기계 (십억 원)	39,967 (10.4)	20,717 (6.3)	21,177 (3.4)	41,894 (4.8)	20,834 (0.6)	20,702 (-2.2)	41,536 (-0.9)
철강 (천 톤)	9,896 (9.3)	5,195 (-1.4)	4,455 (-3.8)	9,651 (-2.5)	5,245 (1.0)	4,321 (-3.0)	9,566 (-0.9)
정유 (십만 배럴)	3,721 (1.4)	1,981 (11.2)	1,997 (2.9)	3,977 (6.9)	2,025 (2.2)	2,019 (1.1)	4,044 (1.7)
석유화학 (천 톤)	9,078 (1.0)	4,770 (2.6)	4,967 (12.2)	9,737 (7.3)	5,133 (7.6)	5,169 (4.1)	10,303 (5.8)
섬유 (십억 원)	24,807 (-7.4)	12,029 (3.6)	13,685 (3.7)	25,714 (3.7)	12,451 (3.5)	13,957 (2.0)	26,408 (2.7)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6,637 (-18.9)	17,636 (-3.8)	19,130 (4.5)	36,766 (0.4)	18,753 (6.3)	19,632 (2.6)	38,385 (4.4)
가전 (십억 원)	10,602 (-7.0)	5,655 (5.8)	5,516 (5.0)	11,171 (5.4)	5,732 (1.4)	5,663 (2.7)	11,395 (2.0)
반도체 (십억 원)	81,427 (-19.0)	45,020 (13.0)	50,003 (20.3)	95,023 (16.7)	47,825 (6.2)	51,879 (3.8)	99,704 (4.9)
디스플레이 (십억 원)	4,681 (-3.3)	2,781 (30.1)	2,216 (-12.9)	4,997 (6.8)	2,722 (-2.1)	2,185 (-1.4)	4,908 (-1.8)
이차전지 (십억 원)	11,524 (39.7)	3,189 (-48.9)	3,659 (-30.7)	6,847 (-40.6)	2,693 (-15.5)	2,843 (-22.3)	5,536 (-19.1)
바이오헬스 (십억 원)	27,895 (-7.2)	13,987 (-0.8)	14,043 (1.8)	28,030 (0.5)	14,767 (5.6)	15,082 (7.4)	29,848 (6.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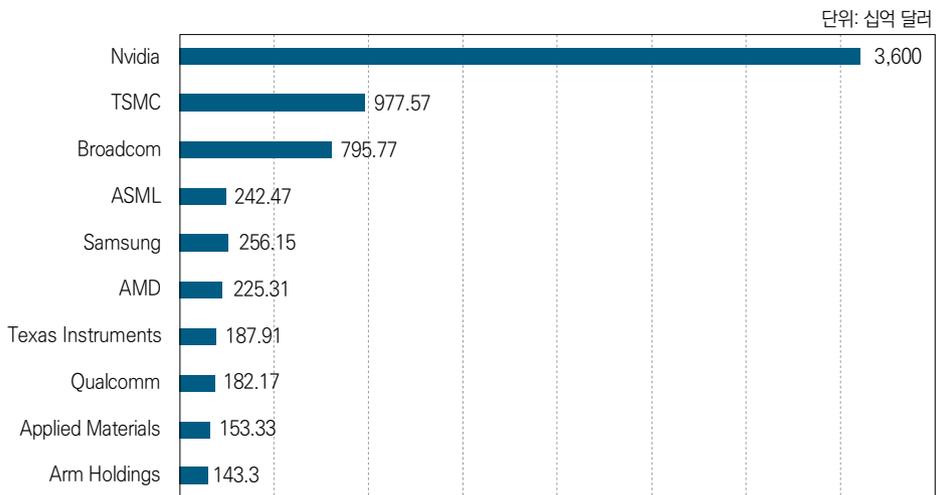
<참고>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

□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 총액 순위는 반도체 생태계의 복잡성을 반영

○ 2024년 11월 15일 기준,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3조 6,000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선두

- 다음으로 TSMC, 브로드컴, ASML이 뒤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2,561억 달러로 5위
-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제조공장을 가지지 않은 팹리스 기업이 Arm Holdings 포함 5개로 가장 많으며, 파운드리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 기업이 3개, 제조 장비 기업이 2개로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복잡성을 반영
- 국가별로는 팹리스 기업은 미국과 영국, 제조 장비는 네덜란드와 미국이 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제조 중심인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이 선두

시가 총액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2024년 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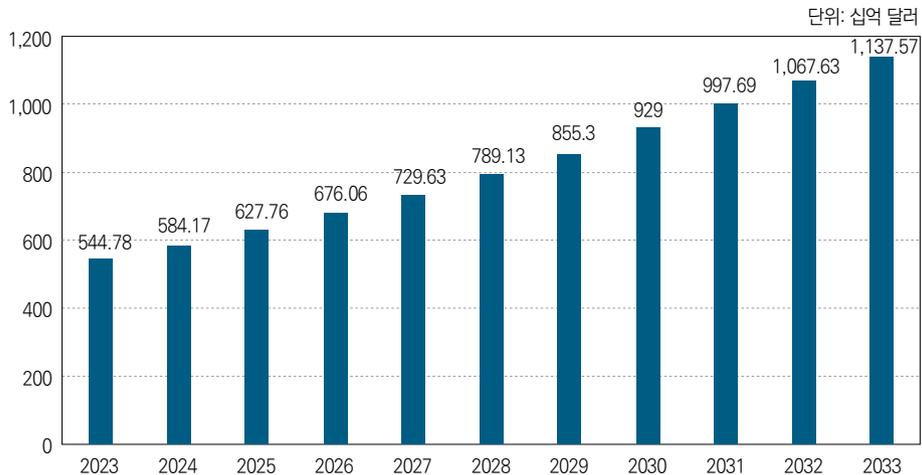
자료: statista(2024).

□ 향후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7% 이상 성장 전망

○ 2023년 약 5,448억 달러인 세계 반도체 시장은 10년 후인 2033년에는 약 1조 1,3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통신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7.6%로 지속 확대될 전망
- 5G 통신의 글로벌 상용화가 확대됨에 따라 고화질 영상 전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무선통신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대용량 무선 전송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
-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차량용 반도체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서 고급 센서, 프로세서 및 다양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
- 반도체 제조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도의 숙련된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자료: PrecedenceResearch(2024).

□ 복잡해지는 D램 시장

- 기존의 D램 시장은 한국, 미국 기업이 PC와 서버에 사용되는 DDR 시리즈로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발생
 -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기업은 범용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애국 소비를 통해 중국 내 시장점유율 확대 중
 - 중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하는 범용 반도체는 고성능의 수출용 최첨단 IT 기기에는 사용하기 어려우나, 내수용 제품에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 가격 상승을 저지
 -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가 PC·모바일·서버 등 주요 수요산업 내에서 점차 D램을 대체하며 시장을 확대
 - 현재 세계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4년 4월 청주 M15X 공장에서 HBM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5년 4분기 중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 양산에 돌입하여 공급을 더욱 늘릴 전망이다
 - 기존의 D램 시장에서 중국과 HBM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세계 D램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세계 반도체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TrendForce는 2025년 세계 D램 비트(Bit) 생산의 25% 증가를 예상, 이 중 중국과 HBM이 10%포인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D램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

세계 D램 시장 동향과 전망(비트(Bit) 생산 증가율)

	단위: %	
	2024F	2025F
· 세계 D램 시장 성장 전망	17	25
· 중국을 제외한 세계 D램 시장 성장 전망	14	21
· HBM을 제외한 세계 D램 시장 성장 전망	13	20
· 중국과 HBM을 제외한 세계 D램 시장 성장 전망	9	15

자료: TrendForce(2024).

연구진

거시경제 전망

총괄	박성근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변창욱 동향·통계분석본부 선임연구위원
국내 경제	홍성욱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
세계 경제	민성환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
물가 및 금리	이원복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유가 및 환율	이소라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강성우 동향분석실 연구원
소비	김현석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투자	김태훈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수출입	한정민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김정현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

13대 주력산업 전망

총괄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자동차	김경유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조선	이은창 시스템산업실 연구위원
일반기계	박상수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
철강	이고은 소재·산업환경실 전문연구원
정유	최동원 소재·산업환경실 부연구위원
석유화학	조용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섬유	이임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신산업실 선임연구위원
가전	심우중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반도체	김양평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디스플레이	남상욱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김성진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이차전지	황경인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바이오헬스	정지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KIET 경제·산업 전망 2024-02(1)

2025년 경제·산업 전망

발행일 2024년 11월 25일
발행인 권남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287-3114
팩스 044-287-3333
문의 044-287-3146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ISSN 2983-0338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